

## 총학 선거 둘러싼 성명 공방전

### 3개 전직 단과대 “합의없이 일방적 예산집행”

### 총학 비대위 “정치적 의도로 성명 공개”

오는 22일부터 3일간 치러지는 제38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전직 이과대 정형주(통계3)·생자대 임원철(식자4)·공과대 우영진(기계4) 학생회장이 3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본훈·국교4, 이하 총학 비대위) 규탄 성명을 발표해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직 이과대·생자대·공과대 학생회장들은 지난 2일 ‘총학 비대위의 학생회비 납입과 유용, 운영위원회 의결권으로서 고개 속여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총학 비대위가 학생회비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카메라 구입비 △물값 △광주순례비 △평택투쟁지원비 △봄·여름 농활에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날 3일, 총학 비대위 오선일(국교4) 사무국장을 비롯한 5개 단과대 학생회장은 이에 대한 입장의 공개성명을 밝혔다. 공개성명에서 총학 비대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 예산이 편중된 점과 복지 문제 해결 등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3개 전직 단과대

	전 이과대·생자대·공과대 학생회장	총학 비대위
카메라 구입비 (80만 5천원)	카메라 분실이라는 무책임한 명목으로 고액 장 비구입	대중사업 기록 필요성 때문에 미련
물값(50만원)	학교가 물값 지원을 끊었다면 학교에 물값을 요구해야함	지난 총학생회 빛이었고, 학교 측은 물값 지원 중단 방침을 강력히 유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광주순례비 평택투쟁지원비 (83만원)	학기 초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회비 사용함, 참여 원하는 단과대 있다면 비대위 예산이 아닌 단과대 예산으로 처리해야함	5개 단과대가 참여했으므로 예산 자체 판단으로 예산 지원
봄 농활 및 여름농활 (약 660만원)	전체학생 약 2%만이 참여하는 행사에 전체 예산의 60%사용은 잘못임	학생회 위기 속에서 9개 단과대가 참여한 가장 대중적인 사업임

〈표〉는 이번 사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 항목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이다.

학생회장이 제기한 37대 총학생회 비대위 예산사용내역의 ‘납입’과 ‘유용’ 의혹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 밖에 양측은 다른 사안에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직 이과대·생자대·공과대 학생회장측은 “1학기 총학 비대위의 예산 소운영위원회에서 한총련 서총련 서남총련으로 압축되는 외부단체 가입비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천징수액이었던 전체 예산의 3.3%는 단과대 학생회 예산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총학 비대위에 원천징수액 환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총학 비대위 오선일 사무국

장은 “원천징수액은 총대의원회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형주 전직 이과대 학생회장은 “총학 비대위가 받은 원천징수액을 총대의원회가 부재인 상황에서 이리저리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다가오는 제38대 총학생회 선거에 총학 비대위 규탄 성명발표에 동참한 전직 공대 학생회장과 총학 비대위장이 각각 다른 조의 부후보로 입후보함에 따라 이번 성명사건 시기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과대·생자대·공과대 학생회장은 지난 9월, 총학 비대위에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요청했다. 사용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문제를 느꼈고, 총학 비대위와 함께 논의하고 공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학 비대위 측은 사전에 논의없이 먼저 공개했다. 이에 오선일 사무국장은 “총운위와 나의 주장에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전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선거기간에 공론화 시킨 점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우영진 전직 공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관심이 뜸한 중간고사 기간에 총학 비대위측에서 독단적으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며 “이에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과 선거기간과 겹쳤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나도 대학생” ... 지난 10월 31일부터 학림관에서 ‘국어작문’을 듣는 06학년 예비대학생들의 눈이 수업에 대한 설렘과 대학생들의 기대감에 한껏 들떠 보인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동국 코끼리 새로 태어났어요

### 고전 이미지 벗고 ‘젊음’ 강조

우리학교 엠블렘이 오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고전적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지난 달 목멱가야제에서 처음 학생들에게 공개되었다.

새 엠블렘에 대해 관계자는 우리 학교 상징동물인 코끼리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나타내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했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희망찬 동국 100주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문구성, 한글구성까지 모두 4가지 기본형을 가진 엠블렘은 총 3

색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색(동국블루)은 젊음, 희망, 새로움, 도전을 상징하고, 노랑색(동국옐로우)은 온기, 학문의 성취와 배움, 행운을, 적색(동국레드)은 힘, 에너지, 변화, 열정, 번영 등을 의미한다.

이는 엠블렘을 보면 우리학교의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학교의 색과 이미지를 통일해 제작된 것이다. 이번 엠블렘은 배너, 홍보책자, 포스터, 기념품, 현수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활용될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본교 인사 발령

△기획처 인사관리팀장=김준대(이상 10월 5일자) △법과대학장=변종필 △비교법문화연구소장=김상겸(이상 10월 13일자) △총무로영상문화사업단장=신익섭(기획처장 겸임)(이상 10월 19일자) △캠퍼스마스터플랜·건설본부장=김홍일(이상 11월 1일자) △캠퍼스마스터플랜·건설본부 기획팀장=박동수 △100주년기념사업본부 기념사업팀=박정순, 박현숙 △총무로영상문화사업단 기획사업팀=정경훈(동대신문사 편집국장 겸임해제) △마스터플랜·건설본부 기획팀=정형주 △교무처 학사지원실=양윤정 △기획처 심사평가팀=김범중(총무처 구매팀 겸임)(이상 11월 1일자)

### 동대 학술상·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 |   |   |
|---|---|
| <b>제43회 동대 학술상</b>                      | <b>제20회 동대 문학상</b>                            |
| 1. 모집분야: 인문, 사회, 자연                     | 1. 모집분야: 시, 소설, 희곡·시나리오                       |
| 2.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2. 응모요령: 시 3편 내외, 소설, 희곡·시나리오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 3.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     | 3. 시상: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제출: 10월 24일(월)~11월 11일(금)까지  
입상발표: 2005년 12월 5일자 동대신문(예정)  
문의: 02) 2260-3491~2

### 졸준위, 기념품 배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정현준·토목공4)는 졸업사업비를 납부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간(10시~16시) 만해관 입구에서 기념품을 배부한다.

### 본사사령

◇면 기자  
▲정명아(사과대1)  
- 이상 11월 7일자

### 도서관 도서 수증

지난 2일 이철교 전 출판부장이 도서 1만 3천여 권을 우리학교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에 기증했다. 기증도서들은 대부분 불교관련서적이다.

지난 4일에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2005년도 기초학문 육성 우수 학술도서’ 총 383종 1,021권을 기증했다.

이 도서들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각 출판사의 책을 학술적인 면에서 선정한 것으로, 각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우리학교를 포함한 106개 대학에 기증한 것이다.

지난 달 30일에는 송담스님이 직접 저술한 ‘불법은 의학이다’ 600여 권을 기증했다.



“세상의 반은 하늘, 세상의 반은 꽃밭...” 세상에서 가장 넓은 국화 꽃밭 같네요 하늘과 지상을 반반씩 나누어 가졌으니... 서리를 맞고도 지지 않는 미당국화입니다. 편집부

### 칭찬합니다

우리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 ⑮ 예산 사용 합리적인 방안 제시 큰 힘 주는 기획예산팀 허부강 직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이때마다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주고 제시해주는 사람은 큰 힘이 된다. 우리학교에도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당해, 각 부서들의 큰 힘이 돼주는 이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라며 멋쩍어 하는 기획예산팀의 허부강 직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학교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많은데 각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라는 그는, 항상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모두 열심히 연구·개발하기 위한 건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어 미안할 뿐이죠” 마찰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최대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허부강 직원. 학교 사정상 마음같이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은근슬쩍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허 직원의 이러한 배려는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는 “건학 100주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것 같다”며 “각 부서가 내년을 반전의 기회로 생각해 더욱 열심히 할 것 같다”고 말한다. 더불어 “학생들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녔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는 그의 말에서 학교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느껴본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발전기금 060-700-0119

### 동대신문사 4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00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11월 10일(목) 오후 5시까지  
전형일시 11월 10일(목) 오후 6시  
원서교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 2260-3491-2

단기기획 ① 등록금 책정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 등책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예산 결정난 뒤에는 이미 늦어 ... 성격 둘러싼 대립 좁혀야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학기 초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다. 바로 등록금 협의다. 자칫하면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는 등록금 협의 과정은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 전에 학교와 학생이 함께하는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책협)를 구성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서로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 학교는 등책협 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까지 정착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2006년도 예산 편성 시기를 맞아 등책협과 등록금 인상에 관한 기획을 2회에 걸쳐 준비했다. 편집자

2006학년도 등록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전체 예산 축적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뒤 책정된다. 올해 우리 학교 기획예산팀 예산 편성과정 및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월 초까지는 부서별 예산 계획 협의 및 조정이 진행되고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경에는 캠퍼스별 예산 조정 실무위원회가 열린다.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책협)가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는 타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예산 조정

실무위원회에서부터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등책협은 학생, 교수, 직원 3주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한국의국어대학교 정보기획단장 김태국(경제4) 군은 "학생회가 무조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등책협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거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등책협이 구성된 대학들은 구성되지 않은 대학들보다 본관 점거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예가 드물었다. 등책협은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회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등책협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관련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 학교와 같이 등책협이 정착화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등책협 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몇 개 단과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거나, 선거 운동 준비로 인해 등책협 구성을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 조선대학교의 정은식(기계공4) 부학생회장은 "선

거기간에 다른 총학생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학생주화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올해 임기를 마치는 데까지 등책협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해에 이를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등책협의 성격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회의 의견 대립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등책협이 등록금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관전과 의견개진만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등책협 구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38대 총학생회가 선출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은 총학생회 비대위 관계자나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등책협 구성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캠퍼스마스터플랜 등 규정 제정

### 체계적 사업·연구 활성화 기대

우리 학교는 지난달 19일 캠퍼스 마스터플랜·건설본부규정, 영상문화콘텐츠연구규정, 생태환경 연구센터, 실험실안전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캠퍼스마스터플랜·건설본부는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위해 재구성되었으며 서울캠퍼스 공간혁신 마스터플랜 실행업무를 맡아 공사에 따른 설계, 시공, 감독과 일산 캠퍼스 건설에 따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캠퍼스마스터플랜·건설본부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3캠퍼스건립추진단은 폐지됐다. ▲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은 지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된 '영상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구원을 신설했다. 연구원은 연구위원과 연구교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되며 문화 콘텐츠개발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게임연구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마

케팅 등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할 예정이다. ▲ 생태·환경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환경연구센터가 활성화된다. 이는 현재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에코포럼, 불교생태학과 같은 생태·환경 등 학문간 연계 연구를 높여 생태·환경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센터는 생태환경경사상·시스템, 생태교육NGO, 자연환경복원공학과로 나뉘어 각각 연구될 예정이며 임직원은 센터장, 연구부장, 연구위원,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 캠퍼스 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했다. 이에 따라 실험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대학의 장 또는 관련학과의 주임교수로 하며, 안전관리자는 2인을 선임할 계획이고 안전관리에 관계된 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게 된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혁신시대

### 신(新) 팔정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학교에 8채의 쌍둥이건물이 나타났다는데. 알아본즉, 지난주 실시된 대학 종합평가 현장방문 실사에 대비해 학림관 등 8채 건물의 외관을 모두 같은 색으로 도색한 것이라고. 단시간에 맞춰 도색을 하기보다는 대학건물인 만큼 각 건물의 특징과 성격을 살린 외관장비가 우선이 아닐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알, "우리 학교 대중평에 맞춘 긴급 컨셉은 확립화입니다(!)"

### e(에러)-class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인터넷 창을 띄워두고 한참이나 헤맸다고 하는데. 알아본 즉, 중간고사 기간으로 학생들의 e-class 사용이 많았던 지난 주말, 학생들은 사전 공지도 받지 못한 채 e-class에 접속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고. 서버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만큼 학교는 안정적 서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는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알, "고장 많은 e-class 접속할 날 없다(!)"

## 연구처, 사업계획서 공모

### 소·대형 연구로 분류 ... 오는 18일까지

연구처(처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는 연구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8일까지 연구사업 계획서를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자와 연구팀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공모 분야는 지원규모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분류된다. 지원자격을 살펴 보면 소형사업의 경우 △2005년 외부연구과제 공모에 응모했으나 탈락한 과제가 있는 전임교원 △2002년 3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신입교원에 한하고, 희망자는 별첨의 신청 양식에 해당 내역을 기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구비 지원 규모는 △이공계=과제 당 5백만원 이내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과제 당 3백만원 이내이다.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선정된 연구자에게 2005년 11월 말에 각 대학을 통하여 과제선정을 개별 통지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이며 1년과 6개월 중 한 기

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 연구기반 사업의 경우는 자유공모로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자율적으로 분야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연구사업 계획이 대형국책과제 수주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대형국책과제에 응모해 탈락했으나 연구보완을 통해 향후 선정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원예산은 △인문사회 분야=1천만원 이내 △이공계 분야=3천만원 이내, 지원예산은 과제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구팀 선정 후 예산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접수된 사업 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총점 3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지며 210점 미만인 경우 선정 후보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연구팀은 사업 종료시(2006년 11월 말)까지 1개 이상 대형 국책과제 응모 의무를 가진다. 연구팀 선정 결과는 1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헤> ilmjh713@dongguk.edu



"지켜볼게요" ... 지난 4일 동국대 앞에서 총학생회장 후보가 동국인들에게 추천 서명을 받고 있다. 총학생회 후보자들은 오늘까지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가능하다. 선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일(8일)부터

2005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내일(8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200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이다. 수강신청은 교내 컴퓨터실습실이나 개인 PC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단, 9학기이상 재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개설 교과목의 1학점 당(P/F과목은 시간당) 7만 5천원이다. 개설 교과목은 2005학년도 1학

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10명)을 충족한 과목이며, 실험·실습강좌 및 사이버강좌는 개설되지 않는다. 또한 학과에서 개설을 원치 않는 전공강좌도 개설되지 않는다.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점과 수강료 납부 기간이 지나고 다음달 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자신이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되면 학사지원실에 문의해 교과목을 변경하거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 모의토익점수 10일까지 직무적성검사 8일 실시

국제교육원(원장=김영민·영어영문학)은 오늘(7일)부터 10일까지 영어PASS제 모의토익의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의토익은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 결과는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통과에 활용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반명함 사진 2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만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시험은 오는 19일 10시~12시 30분 혜화관 2층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헤> nanakm@dongguk.edu

취업지원센터(센터장=조의연·영어영문학)는 오는 8일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직무적성검사는 우리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휴학생이면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 3시와 5시, 본관 중앙당에서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100분이고 응시료는 무료다. 접수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한편 검사 당일 접수증은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는 추후에 개별 통지된다. <헤> nanakm@dongguk.edu

### 지켜주삼

○...수위아저씨들이 저녁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술에 취한 외부인들 또는 학생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수위실 유리창을 깨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수위실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위아저씨들이 연세가 있는 터라 위협은 더욱 크다고. 안전창에 창살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밤마다 학교를 지키는 수위아저씨들을 보호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알, "밤마다 무서운 건 귀신이나니라 취객(!)"

### 공중분양

○...공중전화로 전화 한통을 하기 위한 만해관 이용자들의 노력이 눈물겹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만해관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공중전화를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만해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특히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만해과 휴게실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알, "공중전화는 공중에(!)"

### 건학 100주년 기념 디지털(영상문화) 콘텐츠 공모전

1. 행사명 : 디지털(영상문화) 콘텐츠 공모전
2. 행사 개요 :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후 본교와 100주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3. 공모 분야 : 사진·그래픽 부문, 동영상·애니메이션 부문
4. 접수기간 : 2005년 10월 24일 ~ 2005년 11월 25일
5. 특이사항 : "본 행사는 영상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됨"을 표시해야 함
6. 상세한 사항은 행사홈페이지(http://digital.dongguk.edu)를 참조

### 정보관리실

## 2005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안내

1. 수업 일정
  - 가. 일반강좌 : 2005. 12. 22(목)~2006. 1. 17(화) /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6일간
  - 나. 스키강좌 : 2악 3일(일정은 추후 공지)
2. 일반강좌 개설 대상 교과목 및 시간
  - 가. 개설 교과목
    - 2005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교과목 중 계절학기 개설 기준인원을 충족한 교과목
    - 단, 실험·실습·사이버강좌 및 학과에서 개설을 원하지 않는 전공과목은 제외
  - 나. 개설 기준 인원 : 강좌별 10명 이상
  - 다. 개설 시간

이수구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교양	학수번호 끝자리 홀수강좌	학수번호 끝자리 짝수강좌
전공 및 교직	1학기 개설과목	2학기 개설과목

\* 야간시간 : 야간강좌 개설 교과목

3. 수강자격 및 신청방법 : 2005학년도 2학기 재학생 / 6학점 이내 신청 가능
4. 수강신청
  - 가. 기간 및 장소

소속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신청 시간
서울캠퍼스	2005. 11. 8(화)~11. 10(목)	교내 컴퓨터실습실	09:00~21:00
경주캠퍼스	2005. 12. 1(목)~12. 2(금)	개인 PC	09:00~24:00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09:00~17:00

5. 수강료
  - 가. 개설 교과목 1학점 당(P/F 과목은 시간당) : ₩75,000
  - 나.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부대경비가 필요한 경우 수강자가 별도로

자비 부담함.

6.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 가. 정정 기간 : 2005. 11. 16(수)~11. 17(목) 2일간
  - 나. 개설 예정 교과목 안내 : 2005. 11. 15(화) 예정
  - 다. 유의사항
    - 최초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개설예정 교과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하오니 폐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바람.
7. 수강료 납부
  - 가. 기간 : 2005. 11. 22(화)~11. 24(목) 3일간
  - 나. 방법
    - 고지서 출력 : 본교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계절학기"에서 선택하여 인쇄
    - 수납은행 납부 : 제일은행 전국 지점(동국대 출장소 ☎ 02-2260-8990)
8. 개설 교과목 수업시간 확정 발표 : 2005. 12. 1(목) 예정
9. 성적 처리
  - 가. 계절학기 취득 성적은 졸업학점만 인정하며, 장학생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 나. 전공 및 전과, 복수(연계)전공 결정시에는 반영됨
  -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 라. 재수강 신청자 참고 사항
    -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은 "재수강신청원"을 소속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해야 함(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재수강신청원)
    - 교과목이 동일한 과목을 재수강한 학생은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됨(성적취득 후 확인할 것)
10. 경주캠퍼스, 타 대학교 계절학기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실로 문의바랍니다. ☎ 02-2260-3048 FAX 02-2260-3042

수요일,  
동국은 음악에 젖는다...

### 2005학년도 2학기 동국사랑 수요음악회

11월 16일(수) 12:00 중앙도서관

※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 ※

출연진 박연근(포커리스트, 드러머) 이정호(아프리카타악기 연주단원) 동국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PUS	연주곡 시칠리아노 Canon Olatunji Opening Kassa Aconcon Jondon & Willosodon Kuku & Jauli
--	--

주최 :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 행정고시 1차 대비 PSAT특강 공고

1. PSAT 강의일정 및 강사
  - ★ 상륙반단영역(8회) - 조호연(한국법학원 강사)  
10월 31일 ~ 11월 9일 (월-금)
  - ★ 언어논리영역(8회) - 안재오(한국법학원 강사)  
11월 10일 ~ 11월 19일 (월-토, 11/12 제외)
  - ★ 자료해석영역(8회) - 최현일(한국법학원 강사)  
11월 20일 이후 주말강의 예정(추후공지)
2. 특강 장소 및 시간 : 학림관 201호 / 18:00 ~ 22:00
3. 접수기간 및 장소 : 10월 24일 부터  
계산고시학사 참고열람실 (2260-3571)
4. 과목별 수강료 : 본교생 1만원 / 타대생 2만원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무료수강혜택
5. 교재 : 10/26(수)부터 참고열람실에서 판매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산고시학사 박진희조교(2260-3571) 또는 김연수 조교(010-9890-25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고시·외무고시·언론사시 시험 지도위원회

# 혼란 속에서 치뤄진 본교 이사회

## 영배스님 이사 연임 결정 ... 적법성 여부 논란 예상

지난 달 18일 우리학교 본관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14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영배스님 이사 연임을 결정했다. 이날 우리학교가 이사회 진행을 위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영배스님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동도사 측 스님 30여명의 몸싸움으로 인해 본관에는 분말소화기와 고춧가루가 난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 △상임이사 선임 △교원인사 △기타사항 등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먼저 이사선임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영담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추천이 법정기한내에 도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립학교법과 동국대 정관에 따라 이사선임을 진행하게 됐다"

며 오늘 이사 선임이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결정했다.

이어 종관위원회에서 추천한 현문 스님과 영배 스님을 놓고 이사 8명(영배 스님을 제외한 현문, 현성, 성오, 영담, 혜림, 스님, 홍기삼, 황창규, 이재창)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치렀다. 그 결과 투표자 전원인 영배 스님 이사 연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영배 스님은 송구스럽다며 "보답으로 학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선임 안건은 다음 이사회로 연기됐으며 의대 신입교수 임용 등 교원인사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불참한 장운 스님과 지관 스님이 학교 측에서 고의적으로 이사회장 집입을 막았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앞으로 진의과약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장운 스님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법을 어겨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것은 명백한 중벌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배 스님은 다음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14차 이사회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음을 재차 주장했고 일부 이사의 이사회장 집입 방해 논란에 대해서 "이사회 개최 적법성 시비를 위한 의도적 불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내 곳곳에서는 이사회 구조 개편 필요성에 관한 의견들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교직원원은 "오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사회가 학

교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안된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학생들 또한 이사회를 불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회학과의 한 학생은 "스님들이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처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학교도 학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 동약로

#### 천려일실(千慮一失)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미 9시에 실기고사 봤대."

"어떻게 해! 실기고사 못 보면 불합격 처리되잖아!"

지난달 29일 치러진 수시 2학기 실기·면접고사에서 문학재능우수자 전형 지원자 중 일부가 시험시간 착오로 오전 중에 실시된 실기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학생선발실 홈페이지에 문학재능우수자전형이 예체능계열로 분류돼 공지됐다.

그런데 이 전형으로 국문과에 지원한 몇몇 학생들이 계열을 혼동했고, 이에 직접 학생선발실로 전화해 시험일정을 물어본 학생들 중 일부가 전화응대원의 착오로 시험시간을 잘못 전달받은 것이다.

결국 오후에 실시한 면접고사만 치른 학생들은 곧바로 학생선발실로 항의방문을 했다. 그러나 학생선발실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고, 이러한 학교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몇몇 학생들은 학교측의 과실을 물으며 수시전형비 환불만이라도 요구하였다.

이에 학생선발실은 그런 답변을 한 직원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또다른 문제로 수시 2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요강에 게재된 지원자 유의사항 중 일부분을 서류접수기간이 끝난 뒤 수정공지해 수험생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학생선발실은 "2007년 수험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모호한 요강의 일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최근 입시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학생선발실의 한 관계자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털어 놓는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입시요강과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되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결시없이 응시하기는 했지만, 사소한 배려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천가지 생각과 백가지 행동에 하나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되는 게 입시관리야 아닐까.

건학 100주년을 앞둔 지금, 우수 인재를 모집하고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감 있는 학생선발 시스템이 갖춰질 기를 기대한다.

<해>  
iamjh713@dongguk.edu



지난 14일 우리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기정식품'의 김치생산공장에서 공장직원이 위생장갑과 위생모자를 쓰고 김치속을 버무리고 있다. 현재 상륙원 식당에 납품되는 김치는 순수 국산 배추이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계산학사, PSAT 특강 실시

계산고시학사는 행정고시 1차대비 PSAT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PSAT특강은 학원관 201호에서 실시되며 △언어논리영역(8회)=한국법학원 안재오 강사(10~18일, 일요일과 11일 제외)6시~10시 △자료해석영역(8회)=한국법학원 최현일 강사(19~20일, 26~27일) 1시~5시, 6시~10시에 진행된다.

수강 접수는 계산고시학사 참고열람실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우리학교 학생은 물론 타대학 학생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우리학교생 1만원, 타대생 2만원이며 1차 합격자에 한해 무료 수강혜택이 주어진다.

## 신규교원 모집 접수 절차 간소화

### 1차 온라인 접수 오는 16일부터 ... 통과자에 한해 서류접수 실시

우리학교 2006학년도 신규교원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16일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신규교원모집은 서류접수 간소화를 위해 1차접수에서는 지원서 및 연구실적물 목록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1차접수 통과자에 한하여 연구실적물 및 증빙서류를 접수를 받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지원자 간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저명성에 한하여 전자우편 게재 예정 확인서를 인정하며, 기존 1차접수 시 박사학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자에 한해 기본접수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위논문 불인정한다. 이는 신규박사학위자에 대한 우대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한편, 공동연구실적은 현행 교원업적평

가규정을 준수하여 '1/공동연구자수'로 반영하며 면접심사에서 한의(의)과대학장은 면접심사위원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31개 분야에서 총 31명 △경주캠퍼스=12개 분야에서 총 12명 △의화계열 임상분야=15개 분야에서 총 13명의 신규교원을 모집하며, 서울캠퍼스 강의 전담 초빙교수는 △법학클리닉 △자연과학 글쓰기 △고전강독분야에서 총 4명을 모집한다.

2006학년도 신규교원 모집 참가자는 △강의전담 초빙교수 임용지원서 △전체 연구실적물 목록 △강의 경력 세부 목록 △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우리학교 소정 양식에 맞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된다. 1차접수 통과자는 다음달 6일에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우리 대학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일(2006. 3. 1) 현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이다.

또한 1차접수 통과자는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캠퍼스 지원자=서울캠퍼스 인사관리팀 △경주캠퍼스 지원자=경주캠퍼스 교무기획팀 △의화계열 임상분야 지원자=동국의료원 총괄지원과로 △학위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전체 연구실적물 △2003년 3월 1일 이후 각종 수상 및 특허 증명서류 △반명합판 사진 3매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제6회 독서토론회 ... '현명한 투자자'

### 신방과 10주년 학술제 개최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이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제6회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선정도서는 벤자민 그라함의 '현명한 투자자'이며 경영학과 이하일 강사의 진행으로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에서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이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제7회 독서토론회' 역시 오는 30일 4시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선정도서는 '블루오션전략'이고 경영학과 이상현 교수가 진행하며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이번 토론회는 교수 혹은 강사 1인의 진행으로 학생 토론자 10인이 선정된 도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신문방송학과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10주년기념 학술제를 개최한다.

학술제 첫날인 9일에는 '디지털의 시대 미디어 사회학'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자로는 최일구 MBC기자가 초청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10일에는 신문방송학과 소모임인 △아메바 △톱 △몽중인 스낵그림이 덕암세미나실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작품발표회를 연다.





##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 100년은 프리미엄이다!

100년간 키워온 무성한 학문의 숲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맺어온 수많은 동문의 내력을 나의 것으로!  
100년간 쌓아온 든든한 콘텐츠 위에서 출발하세요.

## 2006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www.dongguk.edu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일반대학원	인터넷접수: 2005. 11.10(목)~24(목) 방문접수: 2005. 11.22(화)~25(금)	2005. 12.10(토)	http://www.dongguk.edu/gs	(02)2260-3094~5
불교대학원	2005. 11.14(월)~11.25(금)	2005. 12. 1 (목)	http://home.dongguk.ac.kr/~gsbs	(02)2260-3097~8
행정대학원	2005. 11. 7(월)~11.18(금)	2005. 12. 3 (토)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1~3
경영대학원	2005. 11. 7(월)~11.17(목)	2005. 11.19(토)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교육대학원	2005. 11.14(월)~11.18(금)	2005. 12. 3 (토)	http://graduate.dongguk.edu/edu	(02)2260-3110~1

대학원명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언론정보대학원	2005. 11.21(월)~12. 1(목)	2005. 12. 3(토)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3733
산업대학원	2005. 11.16(수)~12. 1(목)	2005. 12. 3(토)	http://gsite.dongguk.ac.kr	(02)2260-3861,3602~3
문화예술대학원	2005. 11.14(월)~11.22(화)	2005. 11.26(토)	http://graduate.dongguk.edu/ca	(02)2260-3606~7
국제정보대학원	2005. 11.23(수)~12. 8(목)	2005. 12.10(토)	http://iai.dongguk.ac.kr/iai	(02)2260-3723,3733
불교문화대학원	2005. 11.14(월)~11.24(목)	2005. 11.26(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393~5
사회과학대학원	2005. 11.14(월)~11.25(금)	2005. 11.26(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093~4

# 문제 본질에서 벗어난 강정구 교수 논란

## 정치적 논리 앞세운 언론보도 ... 성숙한 비판 아쉬워

우리학교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테일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배 된다며 문제시 됐다.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에 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불어났던 것이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안보'를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으로 언론의 주요 지면을 장식했다.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은 판이하게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휘권 발동은 천정배 장관의 소신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평가하는 등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였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언론은 '무지와 색깔론이 일으킨 강정구 논란',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조선, 동아일보 등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강 교수 사건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왜 대한민국에 있는가', '강정구 친북발언 인내하기 힘들다' 등의 지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묘사하며 사냥식의 기사를 보도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 교수 사건이 천정배 장관의 동반사퇴여부나 후임 총장인선 방향 등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가며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가열되는 동안 강 교수 사건과 관련해 어느 곳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에서 '강정구 잡싸는 노무현 정부, 공상맞고 비겁', '노대통령, 검찰 영향력 행사하는 발언 삼가야' 등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 교수 관련 논란은 우연히도 지난달 26일 열린 재보궐 선거를 끝으로 수그러졌다. 선거 후 우연인지 필연인지 강 교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론,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한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강정구 교수 관련 사건 정리

- ▲ 7월 27일=강정구 교수,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 글 기고
- ▲ 8월 22일=23개 보수단체 강교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경 고발
- ▲ 8월 24일=경찰사법처리방침 발표
- ▲ 9월 5일=경찰 1차 소환조사
- ▲ 9월 9일=경찰 2차 소환조사
- ▲ 9월 30일=강교수, 민교협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 예측적, 반통일적인 것"이라고 주장
- ▲ 10월 4일=경찰 3차 소환조사
- ▲ 10월 7일=경찰, 강교수 구속 의견 검찰에 제출
- ▲ 10월 12일=천정배 법무장관, 불구속수사 직접 지휘
- ▲ 10월 13일=대검 건부 긴급회의, 김종빈 검찰총장 입장표명 유보
- ▲ 10월 14일=김 검찰총장, 불구속수사지휘 수용 밝힌 뒤 사퇴 표명
- ▲ 10월 17일=학교측 유감 성명서 발표
- ▲ 10월 27일=대책위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직위해제 반대'를 위한 후원의 밤' 개최

# "비난·걱정·옹호" 다양한 학내 분위기

## 수시2학기 무사히 치러 ... 재판경과 추이 지켜봐야

강정구 교수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고민에 휩싸였다.

학교 본관부서는 항의전화와 방문으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받았고, 학생들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취업제한' 발언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내 움직임과 학내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살펴 보았다.

강교수의 기고 글이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 8월, 총동창회는 '강정구 교수는 역사 앞에 자숙하고 근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단 이사장인 현해 스님은 지난달 6일 한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수 한 사람으로 인해 학교 학생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자유게시판도 뜨거웠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강 교수 파문으로 취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일부 학생들의 항의성 글이 다수 올라왔다. 또한 우리신문사 자유게시판에는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외부인의 글들이 수백건 쏟아졌다.

이번 강 교수 파문에 대해 재학생 N(전자3)군은 "취업 과당이 돌 정도였다"며

"특히 기성 세대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져 취업이나 학교 대외 이미지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된 수시 2학기 입시에서 구성원들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재외국민 전형은 작년 지원자 수 350명보다 131명이 늘어난 481명이 지원했고, 수시 2학기 평균 경쟁률은 14.73:1로 지난해 14.56:1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옹호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먼저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돼 지난 9월 2일 동국관 로비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공세와 사법처리를 중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대책위는 강교수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지난 27일 문화관 그릴에서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직위해제 반대'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이동철(독문4) 집행위원장은 "이 행사는 대학을 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곳으로 만들고, 강교수 사건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불신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이 오히려 학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는 재학생 J(사과대1)양은 "대학이 지성의 전당인 만큼 학내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학교 당국은 지난달 17일 비상 교무위원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 강 교수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공 회의소 부회장의 발언에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된 것 아니냐는 일부 학생들의 반응에 학교 측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후에 부회장이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의 한 인터넷 매체 칼럼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지난달 내내 사회를 뜨겁게 달구더니 10.26보궐선거가 끝나면 서부터 잠잠해졌다. 학교 비서실과 관련 교무처에 쇄도하던 항의전화도 거의 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관용(사회3) 사회학과 학생대책위원회장은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으나, 앞으로 진행될 강정구 교수 재판 경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대책위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혜>  
iamj713@dongguk.edu

### 사설

## 총학 후보자 선거 유세에 즈음하여

우리학교가 과연 명문사학으로서 '건강한' 건학 100주년을 맞을 수 있는가. 2년여 동안 비어있던 총학생회실과 매끄럽지 못한 제38대 총학생회 선거는 이같은 의문을 자아낸다.

총학생회는 현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체제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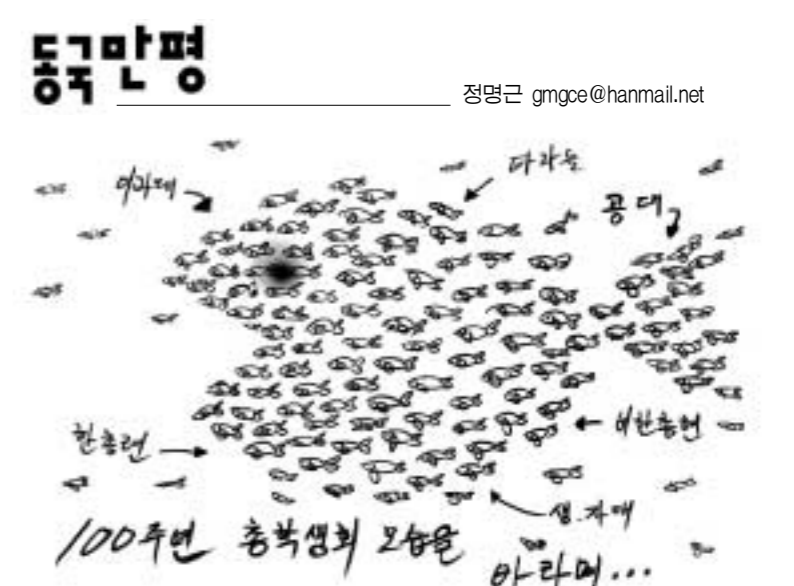
하지만 △특정 사업 예산 편중 △복합 문제 미해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총학 비대위 대표자들간의 마찰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총학 비대위가 지닌 문제점을 함께 평가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어느 하나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총학 비대위 대표자이자 현재 선거 후보자들의 모습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학내 구성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새로운 총학생회 선거와 후보자들 사이의 논쟁은 희비가 교차된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조직이자 복지와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만큼 학생들은 이 사안에 민감하다. 우리학교 여론광장인 '나의 주장'만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전직 3개 단과대 학생회장의 규탄 성명서 이후 수백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익명게시판인 여론광장은 "당신 보아하니 누구 편 같은데?"라는 글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글까지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후보자들이 지난 총학 비대위의 문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총학비대위에 제기된 문제는 단지 성명서를 붙이는 것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고, 학내사안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현재 겪고 있는 총학생회 집행부와 단과대 학생회장 사이의 '갈등'과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해야 함은 물론이다.

내일(8일)부터 총학생회 후보자 선거유세가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 큰 숙제를 떠맡게 됐다. 3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활발한 그리고 튼튼한 100주년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윤재용  
부주장: 김세곤  
편집장: 황주상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157

## 제4회 동국청우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었던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동국청우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습니다.

- 추천대상 : 동문, 교수, 직원, 학생
- 구비서류
  - 1)후보자 추천서(A4용지에 자유형식으로 작성) 1통
  - 2)후보자 공적서(A4용지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 1통
  - 3)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1통
  - 4)공적 증빙자료(제출가능자에 한함) 1부
- 접수마감 : 2005년 11월30일까지
- 시 상 : 상패 및 부상(순금 30돈)
- 시 상 일 : 2005년 12월 15일(총동창회 '동국인의 밤' 행사장)

\*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것은 청우 최재구 선생 추모사업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만해관 352호실  
전화 016-896-3916(윤원영) / 2260-3985(신관호)

###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회장 류주형

## 제15차 한국불교어문학회 학술발표회

### 낙산사(落山寺), 그 성지의 불교문학적 조명

일시: 2005년 11월 12일(토) 13:00 - 18:00 ~ 11월 13일(일) 09:00 - 12:00  
장소: 양양 낙산사낙산사 유스호스텔 1층 강당  
주최: 한국불교어문학회, 후원: 낙산사

12:30 등록  
12:50 개회  
개회 및 삼귀의 : 사회 (강석근, 동국대 객원교수)  
회장 인사 : 김승호(동국대 교수, 본회 회장)  
축 사 : 낙산사 정법 주지 스님

학술발표  
사회: 배규범(경희대 겸임교수)

13:00 - 13:30	기조발제 : 낙산사의 역사와 문화(가제)	사제동(충남대 명예교수)
13:30 - 14:00	낙산사 연기설화의 구전(口傳) 양상과 의미	박상관(동국대 강사)
14:00 - 14:30	禪信號의 문학적 성격과 그 의미	김진영(충남대 교수)
14:30 - 14:50	중간 휴식	
15:10 - 15:40	18세기초 사대부의 낙산사 探跡 2題	이승수(한양대 연구교수)
15:40 - 16:10	낙산사 재영시의 문학적 의미	임종욱(청주대 교수)
16:00 - 16:30	중간휴식	
16:00 - 18:00	종합토론 좌장 : 김갑기(동국대 교수)	
18:00	사용서원 및 폐회	

토론자 : 김승호(동국대), 김기홍(동국대), 박재금(이화여대), 신태영(성균관대)

## 2005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특별 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초청강사 : 치사까겐보 상운사주지스님 (일본 수목장 지승원의 창시자)
- 강연제목 : 일본 <사찰 수목장의 운영 현황과 전망> (부제 : 한국의 수목장 활용방안 모색)
- 일 시 : 2005년 11월 7(월) (오후4시 ~ 6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덕암세미나실 (문화관 1층)
- 연 락 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행정지원실 (02-2260-3097 ~ 8)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정래문화학과  
후원 - BBS, btn, 불교신문, 법보신문, 중앙불교, 주간불교, 민불신문, 아라미어신문  
주) 연당센터, 대한불교 연화회 02) 734-4444

#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진동제어시스템 장착 구조물의 통합최적설계

우리학교 공과대학 박관순 교수가 한국 과학재단에서 선정하는 '대표적 우수연구성과 50선'에 선정됐다.

한국과학재단은 재단지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산출된 대표적 우수연구성과 사례를 발굴해 연구자간 건전한 연구경쟁을 유도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대표적 우수연구성과 사례를 선별하고 있다.

박관순 교수는 산업경쟁력 부문 기초과학 연구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연구부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연구성과 50선에 선정됐으며 지면을 통해 연구성과를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박 관 순**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최근에 이루어진 경제 기술 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각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수준을 요구하게 하였다. 구조물의 경우에도 안전성, 편의성 및 사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진, 바람 등 구조물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수준 높은 대책이 강구되었다. 구조물의 진동제어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첨단기술로서, 일본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수의 구조물에 이미 설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인천공항 관제탑에 풍하중에 대한 진동방지 대책으로서 복합형 진동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바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구조물의 진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이러한 장치의 설치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특수 구조물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인 설계 항목으로 인식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설계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제어시스템 자체를 구조부재의 한 종류로서 인식함으로써 구조제어시스템의 지진응답 제어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개념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는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을 별개로 인식하고 최적 설계를 수행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 개념의 설계기술로서, 기존의 최적화 기법으로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유전자의 복제과정을 모사하여 다수의 설계변수를 효율적으로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대상 구조물 및 제어시스템의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통합최적설계 기술, 즉 제어시스템 자체를 구조부재의 한 종류로서 인식하여 구조부재의 강성 증가와 제어시스템의 도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 기법은 기존의 설계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래 개념의 설계기술로서, 기존의 최적화 기법으로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유전자의 복제과정을 모사하여 다수의 설계변수를 효율적으로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적화의 목적함수로서 생애주기비용 합계를 사용함으로써,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의 경제성 및 성능을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통합최적설계 기술, 즉 제어시스템 자체를 구조부재의 한 종류로서 인식하여 구조부재의 강성 증가와 제어시스템의 도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 기법은 기존의 설계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래 개념의 설계기술로서, 기존의 최적화 기법으로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유전자의 복제과정을 모사하여 다수의 설계변수를 효율적으로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적화의 목적함수로서 생애주기비용 합계를 사용함으로써,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의 경제성 및 성능을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 대표적인 고전적 교량구조물과 현대 교량 구조물의 예(위: 영국 런던 타워브리지, 아래: 프랑스 노르망디 대교)

## 연구배경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

건설분야의 기술은 산업혁명시대 이후 제반 산업과 더불어 급속한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여, 현재는 100층을 훨씬 웃도는 초고층 빌딩이나 협약한 산악지대 또는 해협을 가로지르는 초장대교량의 건설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특히, 단순히 기능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조형미나 경관미 등의 심미적 가치에 기초하여,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유연하고 날렵한 형상의 구조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물의 고층화, 장대화 추세는 구조물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고유 감쇠 능력을 저하시켜, 지진이나 바람 등의 자연재해 하중과 차량 등의 인공적 하중으로 인하여 진동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구조물의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부재의 보강을 통하여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림 2. 진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된 인천공항 관제탑

이 방법은 추가적인 보강재의 사용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미학적 설계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진동제어시스템은 구조물의 미학적 설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진동문제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로서, 일본과 미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제어 알고리즘과 장치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천공항의 관제탑에 국내 기술진의 설계를 거친 복합형 진동제어장치 설치되는 등, 국제적 수준에 필적하는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제어시스템 최적 설계 또는 최적 배치를 위한 연구들은 제어시스템을 구조물에 설치된 부가적 장치로서 인식하여 제어시스템만의 설계변수를 최적화함으로써, 전체 구조 시스템의 성능 및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구조물과 제어장치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Integrated system)으로 간주함으로써, 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어장치의 특성을 고려하고,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설계 개념을 제안하고, 이러한 통합최적설계의 개념을 제어시스템 장착 빌딩구조물에 적용하여, 구조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최적설계를 수행함으로써, 그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통합최적설계 기술, 즉 제어시스템 자체를 구조부재의 한 종류로서 인식하여 구조부재의 강성 증가와 제어시스템의 도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계 기법은 기존의 설계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미래 개념의 설계기술로서, 기존의 최적화 기법으로는 그 해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유전자의 복제과정을 모사하여 다수의 설계변수를 효율적으로 동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적화의 목적함수로서 생애주기비용 합계를 사용함으로써,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의 경제성 및 성능을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통합최적설계 기법은 수동형 진동제어시스템 중의 하나인 점탄성감쇠기가 장착된 빌딩구조물에 적용되었다. 점탄성감쇠기는 건물의 감쇠효과를 증가시켜 진동에너지를 소산시킴으로써 이러한 진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미 많은 이론적/실�험적 연구를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구조시스템의 진동제어에 실제 적용된 바 있다. 또한 점탄성감쇠기의 빌딩구조물에 대한 적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탄성감쇠기의 효율적인 배치와 최적화된 설계를 위한 연구가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연구진에 의하여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림 3. 점탄성감쇠기가 장착된 빌딩구조물의 예 좌: 시애틀 Bank of America 타워, 1982 우: 시애틀 Two Union 빌딩, 1988

그러나, 기존의 점탄성감쇠기 최적 배치 및 최적 설계 연구들은 점탄성감쇠기를 구조물에

설치된 부가적 장치로서 인식하여 점탄성감쇠기만의 설계변수를 최적화함으로써, 전체 구조 시스템의 성능 및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점탄성감쇠기 장착 빌딩구조물에 적용하는 다양한 지진규모, 지반특성의 하중조합에 대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통합최적설계의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설계변수의 최적배치 및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적설계를 위하여 사용된 유전자 알고리즘은 자연적인 진화과정의 모사를 통하여, 주어진 영역 내에서 설계변수들에 따른 목적함수의 적합도(fitness)를 기준으로 해를 찾아가는 추계학적 최적화방법(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의 하나이다. 설계변수들은 매핑을 통하여 해당하는 기호열(string)로 할당된 후, 이 기호열을 하나의 염색체(chromosome)로 간주하여 교배(crossover), 변이(mutation), 재생산(reproduction) 등의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염색체, 즉 적합한 최적해를 스스로 찾아 나간다. 이 연구에서는 설계변수들, 즉 각 층의 강성과 각 층에 사용되는 점탄성 재료의 단면적을 각각 2진코드(binary code)로 변환하였다. 두 설계변수가 모두 6-bit의 값을 가질 경우, 설계변수들은 2진코드법에 의해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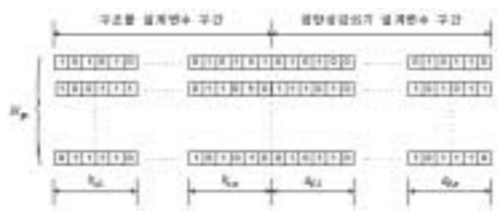


그림 4. 유전자알고리즘 - 설계변수들의 2진코드 변환을 통해 구성된 염색체의 예

유전자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염색체를 미리 정한 개체수 만큼 생성하여 하나의 개체군을 구성한 뒤, 각각의 개체에 대하여 적합도를 계산한다. 적합도 함수값은 각 세대별로 매 개체마다 산정되며, 선택, 교배, 변이, 재생산 등의 유전연산자(genetic operator)를 조작함으로써 더 나은 해를 찾기 위한 과정을 반복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최적 적합도 값이 동일한 값으로 일정횟수이상 반복될 때, 최적해가 결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개체의 선택에 있어서 룰렛휠방식(Roulette Wheel Rule)을 사용하고, 교배에 있어서는 2점교배 방식을 적용하였다. 돌연변이의 생성에는 선택된 개체의 2진코드를 변이확률에 따라서 대립유전자로 역위(inversion)시키는 방식을 따랐다.

한편, 구조물의 설계시,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는 최적설계 문제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공학자들 간의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점탄성감쇠기가 설치된 빌딩 구조물의 경우, 수평력 저항 부재의 강성을 크게 하거나 점탄성감쇠기의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진하중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설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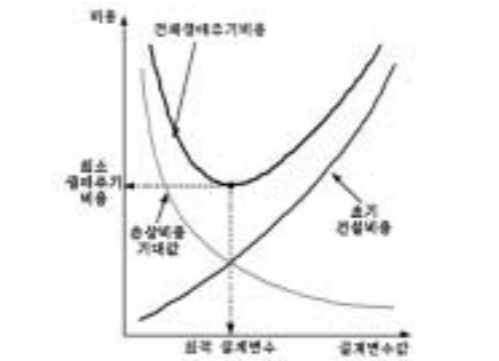


그림 5. 생애주기비용 최소화 개념을 적용한 최적 설계변수의 도출

이 방법은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으로 인해 예측되는 손상비용의 기대값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초기 건설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물의 합리적인 설계 수준은 초기 건설비용과 손상비용 기대값 간의 조정을 통해, 이들 비용의 합으로 표현되는 전체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생애주기비용 개념은 근본적으로 비용과 이득간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점탄성감쇠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득, 즉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제진장치의 사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제어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위한 목적함수로서 최소생애주기비용 개념을 이용하고, 최적설계된 구조계의 생애주기비용에 기반하여 점탄성감쇠기가 장착된 빌딩구조물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지진하중에 대한 파손확률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파손확률을 이용하여 생애주기비용의 기대값을 산출하고, 이를 최소화

하는 최적설계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유전자알고리즘과 생애주기비용 개념을 적용한 진동제어시스템 장착 구조물의 통합최적설계 기법을 점탄성감쇠기가 설치된 10층 Steel-frame 빌딩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6은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로서, 임의의 한 세대에서 가장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선정된 설계변수벡터로부터 평가된 목적함수값, 즉 정규화된 생애주기비용의 최소값과 그 비용을 구성하는 초기비용 및 손상비용 기대값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초기비용은 구조물의 강성과 점탄성 감쇠기의 사용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손상비용 기대값은 빌딩 구조물이 파괴됨으로 요구되어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세대에서는 초기비용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손상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약 40회 가량 세대가 진행된 이후에는 초기비용을 최적해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점차 최적해에 근접한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목적함수값인 전체 생애주기비용의 경우, 목적함수값인 전체 생애주기비용의 경우,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나 20회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감소율이 떨어지며 약 200회 이후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7은 동일한 초기비용을 사용하는 기존 설계방법을 통해 얻어진 지진응답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안된 통합최적설계 기법이 보다 각 층의 층간 변위 및 전체 변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화된 초기비용, 손상비용 기대값, 전체생애주기비용 등과 정규화된 기동부재비용 및 점탄성감쇠기비용, 그리고 층간 ms변위응답 등의 최대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층별로 균일하게 기동강성 및 점탄성감쇠기의 강성을 배치한 기존 설계기법과 응답 비교를 통해, 동일한 초기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층간 ms변위응답의 최대값을 38%, 평균값은 9.3%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응답이 감소함으로써 기동강성 및 점탄성감쇠기의 강성을 균일하게 사용하여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림 8은 동일한 초기비용을 사용하는 기존 설계방법을 통해 얻어진 지진응답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안된 통합최적설계 기법이 보다 각 층의 층간 변위 및 전체 변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화된 초기비용, 손상비용 기대값, 전체생애주기비용 등과 정규화된 기동부재비용 및 점탄성감쇠기비용, 그리고 층간 ms변위응답 등의 최대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층별로 균일하게 기동강성 및 점탄성감쇠기의 강성을 배치한 기존 설계기법과 응답 비교를 통해, 동일한 초기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층간 ms변위응답의 최대값을 38%, 평균값은 9.3%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응답이 감소함으로써 기동강성 및 점탄성감쇠기의 강성을 균일하게 사용하여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림 8은 동일한 초기비용을 사용하는 기존 설계방법을 통해 얻어진 지진응답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안된 통합최적설계 기법이 보다 각 층의 층간 변위 및 전체 변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화된 초기비용, 손상비용 기대값, 전체생애주기비용 등과 정규화된 기동부재비용 및 점탄성감쇠기비용, 그리고 층간 ms변위응답 등의 최대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층별로 균일하게 기동강성 및 점탄성감쇠기의 강성을 배치한 기존 설계기법과 응답 비교를 통해, 동일한 초기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층간 ms변위응답의 최대값을 38%, 평균값은 9.3%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응답이 감소함으로써 기동강성 및 점탄성감쇠기의 강성을 균일하게 사용하여 손상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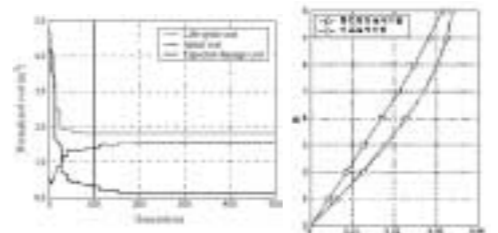


그림 6. 생애주기비용, 초기비용 및 손상비용 기대값의 반복이력(좌), 기존 설계법과 통합최적설계법을 적용한 경우의 변위응답 비교(우)

##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진동제어시스템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의 다수 주요 구조물에 그 적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 제어시스템이 장착된 이래 몇몇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그 적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빌딩, 교량 등의 대규모 주요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 기대되어지는 제어시스템의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개념을 개발하고, 그 적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설계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제어시스템이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에 대한 제어시스템의 장치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이러한 제어시스템의 장치가 일반화된다면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사용성이 확보된 구조물의 설계/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해설

- 진동제어시스템 =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장착하는 시스템으로서, 외부 에너지의 공급 없이 외부에 따라 능동형, 준능동형, 수동형 및 복합형 진동제어시스템으로 구분되진다.
- 유전자알고리즘 = 자연적인 진화과정의 모사를 통하여 주어진 영역 내에서 설계변수들의 최적 해를 찾아가는 추계학적 최적화 방법의 하나이다. 설계변수들은 매핑을 통하여 하나의 염색체로 간주되며, 교배, 변이, 재생산 등의 유전연산자 조작을 거쳐 우수한 염색체, 즉 적합한 최적해를 스스로 찾아가게 된다.
- 통합최적설계 = 구조물의 설계와 제어시스템의 설계가 별개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설계개념을 탈피하여,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최적화를 수행하는 설계개념이다. 구조물과 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이 동시에 극대화 된 최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다수의 설계변수를 동시에 최적화하기 위한 특수한 최적화 기법이 요구된다.

##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 자운영 — K에게

홍신선

해남군 토말부락  
마음 끝에 서서 보면  
보인다.  
다도해 먼 섬들 뒤  
은밀하게 조금 더 작은 얼굴 숨기고 있는  
그 섬의 후미진 독길에  
오일장날 장꾼들처럼 군데군데 모여서서  
홀아져서  
편, 제 기쁨에 넋 놓고 편  
홀생각 자운영꽃들  
오전 이른 햇살이 씻겨주는 환한  
그 이맛전들.

오늘 이 투명한 날씨는 누구에게 드리는  
사랑인가  
누구에게 목매단 그리움인가.

-시집 '자화상을 위하여'  
(2002년 세계사)에서

'자운영' 시는 그의 시집 전권에 흐르는 음울하고 환멸적인 풍경들을 단번에 지우는 맑은 햇살과 같은 작품이다. "마음 끝에 서서 보면" 보인나니! 시인이 언제 한 번 마음 끝에 안 서 본 적이 있겠는가? 다도해 먼 섬들 뒤에 은밀하게 얼굴을 숨기고 있는 작은 섬의 후미진 독길에 자운영 꽃들이 피어 있다고 상상한다. 보랏빛 꽃들이 농밀한 유희를 방울방울 잎사귀 사이마다 티끌을 떨구듯, 그 진초록의 기운을 마시던 황소의 붉은 혀바닥 감촉을 느낄 만도 하다. 제 기쁨에 넋 놓고 피어 있는 자운영 꽃들은 시인이 지금까지 부정과 환멸의 시선으로 안타까와 했던 것들이다. 산업과 과정에서 해체되어 가는 가족과 농촌 사회, 도시 변두리의 일상적 삶의 고통들이다. 오일 날 장꾼들처럼 군데군데 모여서 편 자운영꽃들을 더욱 환하게 씻겨주는 햇살, 투명한 날씨는 시인이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시대라고 사회가 아닌가 생각된다. 시인이 간접하게 바라는 희망들이 아직도 저 먼 작은 섬에 숨어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워 한다. 'K에게'란 부제 역시 절실한 소망을 숨기는 한 장치이다.

홍신선(1944-) 시인은 시집 저서에서 "농경문화 세대의 맨 후미에 처져 있다가 산업사회와 IT사회의 변두리에까지 떠밀려, 세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갈라리 찢긴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의 내면 속으로 떠도는 섬들을 기록한 시편들을 읽으면 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것은 중층의 마음이다. 다소 소시민적인 에스프레소 일회용 컵도 있지만, 사회적 변혁기의 고민과 폐허의 식이여는 지적인 못지않게 치열했음을 숨기고 있다.

강 상 운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 주식회사 장성군

양병무 지음  
21세기 북스, 2005.10.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교과서라 평가받는 장성군의 개혁이야기. 수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장성을 재창조하여 '평생 학습 도시' 개념을 실천하였다. 기업가 출신 군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기업경영 마인드로 재무장하여 자신의 고장 장성을 전라남도의 외진 작은 고을에서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 할 대상으로 거듭난 사연을 세세히 적었다. 일반회사가 작은 그룹을 이끌어 가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 규정과 관례의 벽을 깨고 새로운 시각과 서비스의 정신으로 무장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조앤 K. 롤링 지음 / 최인자 옮김  
문학수첩, 2005.10.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해리포터 시리즈 6권의 일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을 좋아하는 것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어떤 열등학생이었던 소년의 이야기가 이렇듯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각 권마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솜씨가 놀랍다고 할 수 밖에 없다. 6권에서는 '혼혈왕자'의 정체가 독자들을 궁금하게 한다. 원본 한 권을 여러 권으로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책을 한꺼번에 낼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4권은 11월에 나뉘어 출간될 예정이다.

### 카인의 아들 1, 2

퍼트리샤 콘웰 지음 / 홍성영 옮김  
노블하우스, 2005

법의학 스릴러 스카페타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 주인공은 버지니아주의 법의국장으로서, FBI 범죄자문위원회 겸직하고 있다. 주인공의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소설은 항상 살해된 사람의 시신과 더불어 시작된다. 억울하게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풀어나가려는 주인공의 노력이 영화처럼 빠른 템포의 내용과 함께 마음에 와닿는다. 전작인 '사형수의 지문', '시체농장'과 내용면으로 연속되는 작품이므로 함께 읽어보면 내용의 전개가 훨씬 이해가 쉬울 듯. 현재 영화 제작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리더십 담론의 배경과 의미

# 혼돈 속, 사회는 다양한 리더를 요구한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 영웅으로 떠오른 거스 히딩크 감독. 당시 사회는 히딩크 감독 개인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그의 성공적인 '리더십'에 주목했다. 한 명의 조직관리 능력이 전 국민을 흥분으로 몰아갈만한 성공 신화를 창조해 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리더십 담론을 새롭게 조망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리더십 열풍이 한국 사회 전반을 리드하고 있다. 리더십 관련 각종 학술 행사와 세미나, 각 분야 리더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규사원 채용 면접 시에도 리더십 관련 항목이 필수적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도 우리대학을 비롯한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리더십 특별전형'을 통해 리더십 관련 특기자들을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급속한 변화 리더십 열풍 물고와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이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연세대 정치학과 양승환 교수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혼란과 함께 경제 위기까지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참된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리더십의 요구와 더불어 과거 상명하달식 관료제 사회에서는 단순히 엘리트적 리더십을 통해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를 요구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분권화된 개인, 소그룹 단위의 능동적 의사 실행능력을 수행해 나갈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 전문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리더십을 필요로 한 자질로 부각시키며, 사회 전반이 리더십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 대학과 리더십의 상관관계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 사회진출자인 대학생들에게 리더십은 중요한 덕목으로 사회진출 전 미리 익힐 것을 요구받는다.

"해의 명문 사립대학들의 경우 학생 추천서에 리더십 조항을 필수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학과 성적과 함께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점차 채용 면접에 리더십 조항을 필수로 두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는 리더십학회 명예회장 김경숙 교수.

그는 "기업들은 미리 대학까지의 과정에서 리더십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리더십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대학 내 리더십 프로그램 진단

## 대학별 특색있는 리더십교육 마련

### 우리학교 관련 프로그램 전무해

21세기를 주도할 지도자에게 리더십은 필수적인 덕목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에게 리더십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리더십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해 이를 제도화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숙명여대의 경우 이번 해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계 전공 필수과목인 △숙명리더십 △리더십특강 △여성 리더십의 이해 △사회봉사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이화여대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리더십훈련 1, 2가 개설돼 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경영학과 김성국 교수는 "기업 면접에서도 지도자 자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리더십을 요구하는 풍조가 늘고 있는 만큼 대학도 이러한 강화를 개설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부속기관으로 리더십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리더십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연세대는 2001년 '연세 리더십센터'를 설립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 리더십센터의 한 연구원은 "기존에는 엘리트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했지만, 이는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고자 센터가 설립됐다"고 말했다. 과거 리더십은 개인의 선천적 자질이라

여겨졌지만 교육으로 리더십이 길러질 수 있다는 외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여러 대학들이 직접 현장에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리더십캠프나 해외연수 제도, 리더십 주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숙명여대 측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타 학생에 비해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며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처럼 리더십을 교육하려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학교는 리더십과 관련된 강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택으로 DCEP 강좌가 개설돼 있기는 하나 리더십 함양보다는 취업에 연계된 과목으로, 실상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학교 취업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학과에서 리더십과 연계된 과목 개설을 신청하면 이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마다 전문화된 리더십 교육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대학 역시 학교 실정을 반영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lee123@dongguk.edu

### 가상 에세이

## "부딪쳐 깨우치는게 최선의 방법이지"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S기업의 김소심 과장. 그는 오늘도 동료, 상사들 앞에서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잠깐의 휴식시간을 틈타 휴게실에서 담배를 한대 태우려는 순간, 한쪽 구석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신입사원의 모습이 보인다. 다가가 이유를 물으니 회의에서 의사전달을 못해 상사에게 심한 면박을 받은 이후라고 한다. 김소심 과장은 후배의 그런 모습을 보며 예전 대학시절 모습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며 담배를 물어든다.

대학에 갓 입학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던 때에 단순 암기, 주입식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발표와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대학수업은 그에게 낯설고 두렵기만 한 시간이었다. 항상 발표는 조원들에 몰려 피해가기가 일쑤였고, 토론 시간에는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누구보다 컸다. "소심 군. 자네도 한번 의견을 말해보지 않겠나." "네...저..." 1분의 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던 그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이다.

'모의 국제 포럼에 참가해보세요. 여러분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토론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대충 시간을 보내고 나온 강의실 앞에 붙은 광고 데자보는 소심군의 눈길을 잡

먼저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출할 사회적 영역을 설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자발적 리더십을 일차적으로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예비 사회진출자에게는 이러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의 소통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리더십센터 김경섭 대표의사는 "21세기의 리더십은 특정 개인의 일방적 통솔력이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 구성원이 조직에 미치는 다발적 영향력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학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제적인 노력 역시 강조한다. 다양한 사회봉사, 국제 포럼 등의 공동, 연대 활동에 참여해 리더십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예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해 진정한 '성공'을 노려보는 어떨까.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리더십 열풍이 한국사회를 리드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 열풍의 중심에는 예비 사회 구성원인 대학생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리더십을 진단하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 대학의 노력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 어학서적 특별 할인 행사

우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어학서적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 행사기간 : 2005. 11. 7(월) - 11. 30(수)
2. 행사장소 : 다량관 구내서점
3. 문의전화 : 02-2260-8956

### 1) 다락원

교재	정가	할인가
토익900뽀개기	13,900원	6,950
토익900 (L/C)뽀개기	14,900원	7,450
토익900뽀개기(문법, 어휘편)	10,000원	5,000
변형현의 SOLUTION FOR THE TOEIC	17,000원	8,500
토익900뽀개기 PART5.6 실전연습	18,000원	토익록푼이주마(5.6)
토익900뽀개기 L/C 실전연습1200제	21,500원	토익록푼이주마(2.3)

### 2) YBM사

교재	정가	할인가
이준봉R/C	16,000원	8,000원
토익탈출 107	13,000원	6,500원
SUPER CAT 1.2 A-SET	20,000원	10,000원
SUPER CAT 3,4 A-SET	22,000원	10,000원
SUPER CAT 5.6	13,000원	6,500원
SUPER CAT 7	13,000원	6,500원
2+200	22,000원	11,000원
안박사 토익 플러스	23,000원	11,500원
토익 만점 확보공개	20,000원	10,000원
만점예감 TOEIC GRAMMAR	15,000원	7,500원
30일 완성 토익 문법뽀개기	15,000원	7,500원
30일 완성 토익 독해뽀개기	15,000원	7,500원
660 PRACTICE TOEIC	13,000원	6,500원
POWER TOEIC 기초정취 set	22,000원	11,000원
토익 이대로 나온다 L/C	19,000원	9,500원
토익 이대로 나온다 R/C	15,000원	7,500원
터미네이터 베이직 L/C	16,000원	8,000원
터미네이터 베이직R/C	17,000원	8,500원
토익 VOCA 짝꿍이	16,000원	8,000원
토익 기출표현 1600	12,000원	6,000원
토익핵심을 쫓아라	12,000원	6,000원

###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원위원회

### 책소개

##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

- 고구려적 세계와 미래한국 비전



• 지은이 : 윤명철
• 발 간 : 삼성경제연구소
• 가격 : 6,000원

이 책은 광개토태왕을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정복군주로서가 아니라, 세계질서를 능동적으로 재편하고 정치·외교·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며, 태왕이 꿈꾸었던 고구려적 세계와 이를 실현해가는 21세기의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인물 모델의 또 하나의 전형을 제시한다.

인류의 역사적 세계적 인 구모로 확대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가 하나로 통치할 필요성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기류 속에서 서로 상상하고 협력해야 할 시대 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비해 이데올로기에 묻혀 있던 한국의 민족주의가 다시금 전면에서 부상하며,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서로 충돌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도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센카쿠와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의 대립, 그리고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중 간의 대립이다. 민족주의를 둘러싼 대립의 이면에는 정치·경제·군사적 요소도 치열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심부 활용할 전략모델로 동아시아의 중핵조정역할과, 그 실천적 예인 광개토태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광개토태왕이 활약했던 시대상과 고구려의 역사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현재의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현실적 과제들의 한계와 대안뿐 아니라, 더 나아가 21세기 세계경쟁의 비전을 제시해준다.

### 윤명철(尹明結)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구려사와 해양사이며, 광개토태왕을 통해 21세기의 '고구려즘(gogurism)'의 실현을 꿈꾸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해양문화연구소장, 고구려연구소 이사, (지구문화)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1983년 대한해협 뱃목 학술탐사를 시작으로 2회에 걸친 황해문화 뱃목 탐사를 비롯해, 중국 절강성에서 인연을 겪어, 제주도도 일본까지 뱃목 탐보고호를 타고 학술탐사를 한 바 있는 왕성한 탐험가이며, 또한 활발하게 작품 활동 중인 시인이기도 하다.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정정교장을 수훈했으며 (동아시아중핵과 고대일본),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핵》, 《고구려 해양사 연구》, 《정보고의 나라》, 《역사전쟁》,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고구려의 정신과 정책》 등 20여 편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책소개

## 약산 김원봉



• 지은이 : 이원규
• 출판사 : 삼천민학사
• 가격 : 15,000원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천문학사에서 '역사인물찾기' 시리즈 제 18번째 책 '약산 김원봉'이 출간되었다. 열열한 단장이며 열열한 의용대 대장으로서 치열하게 항쟁했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 가는 독립투쟁의 영웅 김원봉과 그의 동지들의 고난 어린 투쟁과 민족적 비애를 되새겨, 독자로 하여금 역사 속 진실에 한층 다가서게 하는 이 책의 지은이는 중견 소설가 이원규 씨이다. 시대와 역사에 대한 작가의 책임을 의식하며 약산의 전기를 쓰게 되었다는 그는 10여 년 전 약산의 투쟁과 삶에 매료된 뒤 그의 숨결이 남은 현장들 거의 빠짐없이 답사하고서 약산의 일생을 재구성해내었다.

약산(若山) 김원봉(金元鳳, 1898-1958)은 민족사를 몸으로 이끌고 나간 비운의 영웅이었다. 약관의 나이에 의열단을 창단,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금을 지켰으며, 조선의용대를 창설해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김약산과 젊은 그들의 활약은 거의 신화적인 것이었으나, 조선 민중은 임시정부의 존재는 몰라도 김약산과 의열단은 모두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는 8·15 광복 후 건준 내각 군사부장에 지명됐으며 남북 분단과 단독정부 수립을 몸으로 막아 분투하다가 입신에 위험이 닥치자 일탈했다. 북한에서도 국가검열사와 노동상을 지내며 민족화해를 부단하게 주장했으나 숙청되었다.

### 이원규

1947년 인천에서 출생.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 1986년 '현대문학' 창간 30주년 기념 장편공모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창작집 '침묵의 섬', '깊고 긴 골짜기', '천사의 날개', '달리던 날개', 장편소설 '혼전과 결혼', '황해', 대하소설 '누가 이 땅에 사람 없다' 하라 19 등을 실재했으며 해외 독립전쟁 현장 르포 '독립전쟁이 사라진다 1, 2', '저기 용감한 조선 군인들이 있었소'(공저) 등도 출간했다. 대한민국문학상, 박영준문학상, 동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모교인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로 있다.

대학과 리더십

# 현실적 리더 양산 대학이 앞장서야



조진만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선임연구원

오늘날 한국에서 리더십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질서가 급속하게 해체되어 가면서 사회는 동요하고 있으며, 이에 리더의 부재와 리더십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리더십과 관련한 서적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리더십이라는 단어 앞에 무수한 형용사들이 붙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사설단체들도 많이 생겨나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대학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대학에서 리더십과 관련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현실적인 리더의 양성 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부족하다.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리더십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도 리더십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기존의 엘리트 육성 중심의 교육방식에 안주하는 대학, 리더는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인식, 리더십과 엘리트주의가 혼용되는 상황 속에서 리더십 교육의 효과를 회의하고 부정하는 태도, 그리고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 리더십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이 리더십의 중요성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바쁘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고, 이것이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리더십 연구와 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대학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향후 대학은 리더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사회적 문제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노력을 수반할 때 갖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리더십 교육의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적 능력의 배양만을 강조하고 이기적인 욕구의 성취를 자연스럽게 묵인하는 대학가의 분위기 속에서 리더의 부재와 리더십의 위기를 우려하는 사회의 목소리들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제야말로 대학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 대학사회 여성파워를 알아본다

## 여성 리더십



일러스트=(현)

# 대학 내 불어닥친 여풍 현대사회를 강타한다

최근 정당, 기업, 여성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진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여성 총학생회장이 선출되는가 하면, 여성 정치인이 증가하고, 여성 CEO, 종교분야 여성 지도자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대학 내 여성파워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남아선호사상을 벗어나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해 서울대에서는 최초로 여성 총학생회장이 당선됐으며, 한총련 의장도 여학생이 선출됐다. 한마디로 요즘의 대학가는 여성이 대세다. 우리학교에서 역시 최초로 여성 총학생회장 후보로 유민지(사회4) 양이 입후보했다. 학과, 단과대 회장 등을 역임했던 유양은 "예전에는 여성이라는 것이 결핍 요소로 판단됐지만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을 또 다른 가능성과 다양성을 발휘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여성, 남성의 다름이 아니라 성(性) 차이를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대학언론들도 우먼파워가 물씬 느껴진다. 중앙

대, 서강대 등 현재 서울 지역 대학신문사 34곳 중 25곳의 편집장이 모두 여성이다. 이에 대해 중대신문 편집장 임지영(국문3)양은 "신문사에 여성의 숫자가 많다 보니 남성중심의 수직적인 문화가 점차 수평적인 문화로 변해가면서 신문사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짐을 느낀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남성이 군대 등의 문제로 사회적 책임의 틀에 묶여 있는 경향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많은 대학에서 여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와 여성관련 직업 강의를 앞 다퉈 신설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마다 여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한양대에는 현재 여성과 직업, 여성과 인터넷 기술, 매너와 서비스 등 여학생을 위한 6개의 강의가 학점 인정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고, 아주대에서도 교양과목으로 '여대생의 커리어개발'을 신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학생의 취업과 발전이 대학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의 경우는

현재 전체 재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약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강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학교 역시 시대에 발맞춰 여성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풍을 일으키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박하고 메말라가는 현대사회를 부드러운 손길로 채워주는 한 우먼파워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여성 CEO 루펜BIF 이희자 대표이사를 만나

# “여성에 대한 편견,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우리는 기업의 CEO를 생각하면 흔히 남성을 떠올린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여성 CEO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주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성공해 음식처리기 회사 중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루펜BIF의 CEO 이희자 대표이사. 그녀는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성공한 여성 CEO로 변신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이희자 대표이사를 만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 사업가 남편의 아내로 남부럽지 않게 지냈지만 언제 나 마음 한 켠에 내 일을 갖는 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조안리의 '스물 셋의 사랑 마흔 아홉의 성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꿈을 설계했다. 후에 남편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조직 경영을 배웠고 49살에 지금의 회사를 직접 설립하게 되었다.
- 여성 CEO로서 회사를 운영할 때의 강점과 단점이 있다면.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조

직을 가정처럼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고 잠자고 있는 여성의 능력을 깨워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의 입지를 굳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이 경영을 하면 남성에게 비해 체력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뒤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편견이 조직 운영을 힘들게 한다. 요즘은 정부가 여성 기업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이라고 무조건 불이익을 당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 리더십을 갖춘 경영인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나.  
= 외국은 어린 아이 때부터 스스로 경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둬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적인 감각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교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장래 여성 CEO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 경영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꿈만 가지고

있을 뿐, 자신의 꿈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함이라도 부딪혀 봐야한다. 반드시 꿈을 이뤄내고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추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꿈을 크게 가졌으면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시작은 조그만 것이지만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크게 키울 생각을 지녀야 한다. 꿈을 크게 설정하고 그만큼 스스로 하려는 의지를 품는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lee123@dongguk.edu

# 얼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2279-1270  
문의·재보 : dgupress@dongguk.edu

## 사소한 에티켓이 동국을 만든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를 벗어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학교는 많이 변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구도서관 자리에 만해관이라는 새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들의 복지와 쾌적한 열람 문화를 위하여 새로 지은 열람 도서관이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들, 학과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영어 한자 공부하는 학생들로 만해관은 항상 북적거렸다. 그러나 우리 동국인의 미래를 위한 학구열이 불타 오르고 정열이 넘치는 이곳에 항상 쌓여 연기가 피어 오르는 한 곳이 있다. 바로 만해관 정문이다. 이 뿌연 연기는 학생들

이 피는 담배연기로 만해관이 마치 구름이 걷 듯 한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우리를 위해 지어진 만해관, 우리의 미래가 담겨있고,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는 이곳에 구름이 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동국인의 정문에 구름이 끼면 그 밀려오는 불안감과 당혹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란 곳에 왔고, 사회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에티켓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생 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 같다. 만해관에 오는 학생들이 메스꺼운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우리 동국인이 한 가족이라 생각하면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 동국은 100년의 전통을 지닌 학교로 수많은 동문과 그들이 만들어 온 역사로 이루어진 전당이다. 그 역사를 이루는 지금이 우리 두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를 만드느냐가 100년 후 우리 동국의 위상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디딤발과 터전이 되는 만해관, 밝은 얼굴로 들어가고, 밝은 미소로 나오는 만해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혁(이과대 수석2)

## “이번 주말에 뭐하세요?”

아무것도 모른채 정말 밀도 끝도 없이 막 지냈던 나의 대학 1년. 다시 새로 시작하는 20살. 나의 20살 인생은 “이번 주말에 뭐하세요?” 라는 광고문구를 본 후부터 새롭게 변화했다. 나는 처음에 경협삼아 봉사시간도 채우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루하루를 나도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어,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독거노인 봉사활동

이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각종 사회단체와 시에서의 지원이 많아서 부르주아 독거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독거노인에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많은 고민들을 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뵈 때마다 그런 생각들은 변했다. 독거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질적 부족보다는 정신적 공핍이었다. 그런 마음의 궁핍 때문인지 할머니께서는 우리들을 처음보곤 말가지워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을 열기위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루

하루 만나가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다니 할머니께서도 마음에 열려주셨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얻게 해주었고, 봉사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그대 아직도 작은 미소로 아까운 시간을 봉사점수와 맞바꾸고 있는가? 혹은 막연한 생각으로 봉사하길 어려워하는가? 거창하게 큰 돈을 기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 말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마음들이 봉사이자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배주형(이과대 물리2)

## ‘하늘’은 나를 있게 하는 힘

내겐 ‘하늘’이 있다. 사실 난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자연 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의미와는 다르며 종교에서 말하는 우월존재로서의 ‘하늘’과도 다르다. 하늘은 나의 친구다. 하늘은 가르치지도 꾸짖지도 않는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축복해 주고 무한한 평안을 선물해 준다.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았더라면 말이다. 탁났한 스님이 말씀하시길 우리의 마음엔 수많은 씨앗이 있으며 어떤 씨앗에 물을 뿌릴지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린

일이라고 한다. 어떤 씨앗이 꽃을 피우느냐에 따라 기쁨, 연민 등 긍정의 감정과 절망, 질투 등 부정의 감정들이 발양된다고 했다. 하늘은 언제나 내게 긍정의 씨앗을 가려 물을 뿌릴 줄 아는 혜안을 준다. 어느 날 문득 ‘하늘’이 생각난 건 우연이 아니다. 가슴 가득 하늘을 품으며 난 웃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내 존재가 거대해진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하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존재 앞에 있을 때 주눅이 들거나 그 존재 앞

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열주의다. 하지만 나의 하늘은 거대한 그 존재감을 나와 함께 공유한다.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다. 고로 나의 기세는 세상을 덮는다. 동학에서는 ‘인내천’ 사상을 널리 퍼뜨렸다. 이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니 하늘 아래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인간평등 사상과 모든 사람을 하늘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존중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늘이다. 하늘을 생각할 때 내 눈은 더욱 빛나고 더 멀리 본다. 그리고 솟구쳐 오르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 나의 하늘은 나를 나 자체로 있게 해주는 힘이다. 김윤권(정신대 정통4)



### 논단

임두성  
(사)한빛복지협회 회장

지난 10월 25일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일본의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같은 법률에 의해 같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일제 강점기 소록도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들과 대만 낙생원에 수용된 한센인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강제격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결과 대만 낙생원의 경우는 대만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재판에서 승소한 반면 한국의 소록도 한센인들은 기각당했다. 재판결과를 보고한 후 한국 국민들은 재판마저

### 독자 사진첩



교수님 힘내세요 ...

지난 2개월 간, 강정구 교수는 특검언론이 조작한 여론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법처리 및 징계 반대와 대학 내의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우리 대학 졸업생들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 이관용(사회3)

###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mailto:dgupress@dongguk.edu)

# 무관심으로 고품은 한센병

차별을 받았다고 늦게서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난 2004년 8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나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주재 한국 대사관 등 한센인들의 재판에 그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지원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1년 2개월이 소요된 지루한 재판은 철저히 소록도 한센인들 만의 외로운 투쟁이었다. 현재 한국에는 16,290명의 한센 병력자가 국립 소록도 병원 등 전국의 89개 정착촌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2004년 우리나라 신환자 발병은 25명이었다.

또한 신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리파피신’이라는 치료제 4알을 단 1회만 복용해도 전염력을 99% 상실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퇴치된 질병이다. 이 질병은 전염 정도가 낮은 3군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1군 전염병과 함께 업무중사의 제한대상으로 규정되어 집단 격리와 함께 극심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질병의 지독한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인지는 질병의 수준보다 훨씬 더 약화된 수준이다. 병이러기보다 사회적인 질병이 그릇된 인식과 무지가 한센병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제 강점기에 당했던 한센인 수난 외에도 그동안 한센인들에게 사행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마도 간척사업 강탈, 소록도 84인 학살사건, 삼천포 비도리섬 학살사건 등 한센인에게 가해진 과거사에 대해 국회사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진상조사에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체 일관하며 한센인의 평균연령이 70세의 고령으로 ‘한센인+노인+장애인+빈민’이라는 4차원적 소외계층임에도 이들의 의료보호와 노후복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근 1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한센인들이 겪은 인권의 제한은 국민 기본권에 속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교육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기회를 빼앗겼다. 또 어떤자는 강제 단종으로 자녀를 낳아 키울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한센인들은 이러한 국가권력과 사회의 차별에 자신들의 슬픈 삶을 스스로 감내하며 살아오면서 국가와 사회가 돌아보지 않는 세월동안 한센인들 스스로 빼앗긴 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지금 전국 한센인의 인권보호단체인 한빛복지협회는 16,000회원의 중지를 모아 ‘한센 특별법’을 2005년 정기국회에 발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야 국가와 사회는 한평생 편견의 감옥에 가뒀던 한센인들에게 가슴을 열고 우리사회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보리수

### 어짚·총명·용기

바쁘고 거칠게 돌아가는 이 세상. 선의의 경쟁이건 목숨을 빼앗는 불의의 것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는 다툼과 화해가 두 개의 큰 축이 되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다툼을 떠나하니 다스리기 어려워 인품이 곱출한 이를 선발하여 지도자로 두었고, 그는 사람들을 대신해 악한 이를 벌주고 곡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 인간 사회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기원경).

아이들의 놀이터에서부터 하나의 가정,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지도자는 필요하게 마련이다.

스님들을 위한 좋은 가르침을 담은 <선림보훈>에서는 총림을 다스리는 지도자(주지)에게 이러한 덕목을 요구하고 있다.

“어짚(仁)과 총명(明)과 용기(勇)를 갖추어야 주지를 할 자격이 있다. 어진 자는 도덕을 행하여 교화를 일으키고 상하를 편안하게 하여 오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총명한 사람은 예의를 지키고 안위를 식별하며 훌륭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살피고 시비를 분별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한번 했으면 의심하지 않으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이를 반드시 제거한다. 이 세 가지들 다 갖추면 총림이 일어나고, 하나가 모자라면 기을 것이며, 두 가지가 부족하면 위태롭고,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주지의 도는 폐지될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종교계와 상아탑의 수장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2006학년도 전과(전공변경) 공고

- 지원자격
  -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 단, 국제학전공 재학생중 일반계열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전과후 정규 잔여학기 기간내 졸업 가능자)은 전원 신청 가능함
-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 원칙상 계열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 제한사항
  -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공(학과) 변경
  - 라. 편입생 및 입학시 체육특기자 전형 및 전공(학과)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마. 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 전입 전공(학과) 2004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 20%)
- 시행 일정
  - 가. 원서접수
    - 접수처 :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야간은 야간강좌 교학처) 단, 국제학전공 재학생의 (특별)전과신청원은 학사지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 접수기간
      - 재학중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5. 11. 14(월) ~ 16(수)
      - 2006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 : 2005. 12. 5(월) ~ 7(수)
      - 구비서류 :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나. 면접 및 실기고사 : 2005. 12. 19(월) ~ 24(토).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함. 다. 전공(학과)별 합격자 결정 : 2006. 1. 25(수) 이전(예정) 라.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공고 : 2006. 1. 31(화) 이전(예정)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가. 일반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100%) + 면접
    - 나. 예능계열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 다. 사범계열(체육교육제외)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9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 라. 체육교육과 : 1. 2학년 누계성적평점(80%) + 실기고사(30%) + 교직인·적성검사(5%) + 면접(5%)
    - 마. 국제학전공 재학생중 일반계열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무시험 전형으로 전과시험
-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처

##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각종 프로그램 및 조사활동, 특강등을 통해서 많은 동국인들의 고민에 대한 문제해결 및 예방, 진로탐색, 자기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 상담에 관하여(성격, 대인관계, 정서, 가정문제, 진로 및 적성, 학업)
- 심리검사
  -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작된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인지, 성격, 적성, 정서, 흥미등을 살펴보고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해드립니다.
  - MBTI 성격유형검사
    - 주의 집중의 방향, 인식방법, 판단방법, 생활양식의 네 가지 차원에 따라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구분하여 그 안에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자신의 특성, 주의하고 개발해야 할 점, 직업분야를 알아보는 조력적 기능.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회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검사시간 : 30-40분)
    - 애니그램
      - 정서적 습관, 특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등, 서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유형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면서 자아관찰 및 어려운 문제의 해결들을 도와주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자신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게 해주는 검사입니다 (검사시간 : 30-40분)
      - MMPI
        - 정신 건강을 진단하는 평가 검사로서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이상상태를 알아내고 그에 따르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검사시간 : 40-50분)
        - STRONG 직업 흥미검사
          - 진로선택을 위해 개인이 어떤 활동에 가치를 두는지,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어떤 환경이 적합한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등에 관계되는 척도별 점수를 제공하여 개인의 전체적인 흥미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이들 경향성이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는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검사시간 : 30-40분)
          - 기타 검사들, K-WAIS, K-WISCIII, 전공 탐색검사, 진로 탐색검사, MMTIC
      - 집단상담
        - 비슷한 관심과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내가 보는 타인, 타인이 보는 나, 이들의 반응에 대한 나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탐색해보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성장 집단, 대인 관계 집단, 진로 집단)
      - 교직원 및 교원 자녀대상 프로그램
        - 교직원 및 교원 자녀분들 중, 초등학교(4-6학년)을 대상으로 성격과 지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녀들의 성격 그리고 지능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달되고 있는 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진로도 함께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 검사종류 : MMTIC(검사소요시간 : 30 분)
        - K-WISCIII(검사소요시간 : 100 분)
        - 검사기간 : 방학 중
        - 접수방법 : 학생상담센터 방문 및 전화신청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육계장 (2000)	부대찌개 (2000)	된장찌개 (3200)
11/7	제육고추장김치 (2000)	안동찜닭 (2000)	만두전골 (3500)
	비빔밥세트 (2000)	해물볶음밥 (1800)	고동어자반구이 (3500)
화	돈갈비김치찌개 (2000)	설렁탕 (2000)	된장찌개 (3200)
	돼지채볶음밥 (1800)	제육깁볶음 (2000)	김치불고기술밥 (3500)
11/8	찌개백반 (2000)	참치캔비빔밥 (2000)	해물달걀 (3800)
	수	손만두국 (2000)	찌개백반 (2000)
11/9	삼선짜귀이백반 (2000)	탕수육 (2000)	알탕 (3800)
	떡볶고기 (2000)	팔보채달걀 (2000)	제육볶음 (3500)
목	콩나물국밥 (1800)	김치탕 (2000)	된장찌개 (3200)
	하이리이스 (2000)	계란볶음밥 (1800)	유부부쌈전골 (3500)
11/10	떡양념치킨 (2000)	찌개백반 (2000)	두부김치 (3500)
	금	어묵우동 (1800)	김비경단백반 (2000)
11/11	참치김치달걀 (2000)	간통기 (2000)	쇠고기국밥 (3500)
	푸꾸미콩나물볶음 (2000)	참채달걀 (2000)	산채비빔밥 (3500)

# 달하나 천강에

#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포상



박노성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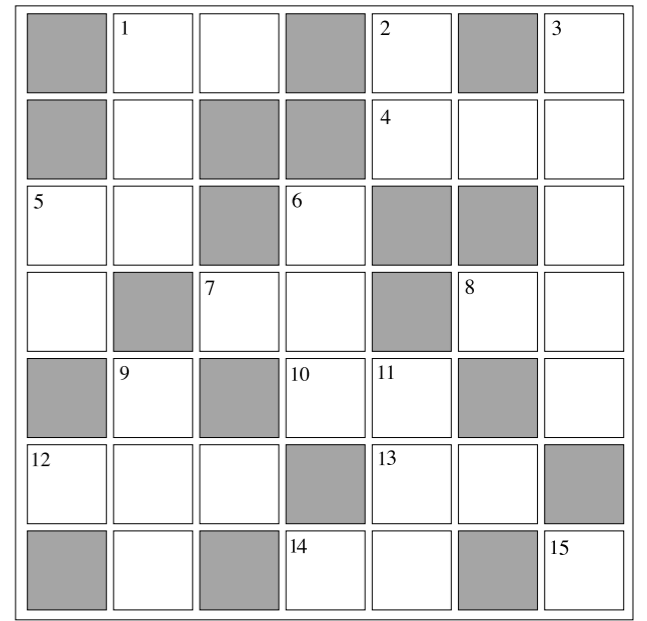
요즘 사회가 시끄럽다. 본교 K 교수의 발언을 빌미로 촉발된 집권세력과 야당 간의 국가정체성 논쟁,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논쟁, 노사 간의 끊임없는 분규... 헤아리자면 한이 없다. 사회가 시끄러울 때 우리는 서로 화해하며 협력하는 세상은 생전에 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불행히도 정답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로 당사자 간 협력의 근거를 규명한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토마스 셸링 교수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로버트

오만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또한 평화상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동 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평화를 위해 한 해에 2개의 포상을 한 셈이다. 국제통상과 협상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분쟁의 평화적, 그리고 창조적인 해결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토마스 셸링 교수는 1960년 출간한 그의 저서 "갈등의 전략(Strategy of Conflict)"에서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기 핵무기 경쟁, 아이들과 부모간의 비랑겔 전략의 대결, 전제군주의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자와 동일한 껍 사용하기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최선의 전략은 상대의 공격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결론 그의 결론은 국가 간의 대립상황에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힘의 축적이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이 가능한 경우 상호간 협력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협력은 선의나 신뢰로부터라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철저한 계산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협력과 맞대응(tit-for-tat) 전략이라는 사실이 로버트 액셀로드(1984)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본 전략은 당사자가 모두에게 이로운 협력적인 자세로 일단 상대방을 대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상대방도 협력적인 자세로 대응하면 계속 협력을 유지하고 배반 즉, 상대방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취하면 당사자도 배반으로 맞대응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에 대하여는 용서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 전략은 당사자들이 협력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서 갈등의 해결에 대단히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협력으로 대응하는 경우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배반하는 경우 맞대응 받게 되는 배반으로 인하여 상대방도 같이 해를 입게 되므로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각 당사자가 실행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행동지침이 있다. 첫째는 먼저 배반하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당사자가 우선 협력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협력기초의 유도에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되 상대방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다. 상대방 또한 그가 가진 자원과 그가

제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협력을 기본태도로 견지하되 상대방의 배반에 대해 배반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계속적인 배반을 목인하면 당사자를 허약한 존재로 보아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넷째, 자신의 취할 행동을 결정할 때나 상대의 행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이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바보로 보고 나를 이용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꾸미지 않을까? 내가 나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고백하면 상대가 이를 이용하여 나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따라서 나는 협력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또한 고백하되 상대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등의 생각들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와의 대면에서 자신의 이해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진정한 해결책 마련의 기초가 되며 상대가 이를 활용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결국은 이는 상대방의 대면에서 자신의 이해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이다.

#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11월 21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세	계	군	지
산	업	기	능
목	력	가	요
민	산	금	원
심	정	방	위
서	용	대	사

당첨자  
민선희(국문3)  
한미란(식품공3)

##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 편집에 노력 기울여야 할 것 학생들 관심갖는 칼럼 있었으면

요즘은 비주얼 시대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기사가 있더라도 독자의 눈을 사로잡지 못하면 좋은 신문이 되지 못한다. 이에 지난 동대신문 1면은 아쉬운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사진기사가 없었다. 이를 만회하려는 듯 이미 지를 크게 사용했지만 색감과 이미지의 질이 떨어졌다. 종합기획은 좋았다. 취입에 맞춰 휴학이 늘어나는 지금 시기 적절하게 좋은 기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제기획면이 이번 동대신문에서 가장 참신했던 기획이었다. 군 문제가 불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군 개혁 그리고 선·후배가 함께 나는 군대 이야기 등 기사의 비중과 흥미를 적절하게 조율했다. 하지만 지면편집은 편집기자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도 든다. 여론·칼럼면을 보면 열린글더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요즘 디카가 활성화된 만큼 사진으로 학생들의 생활도 엿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만큼 동국 히노 애락으로 우리학교의 역사를 풀어 볼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달하나 천강에 칼럼은 여백이 많아 '헛' 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면은 우리학교의 동문을 만날 수 있는 지면이라 긍정적이었다. 특이 이번호는 최민식 동문 인터뷰가 실려, 우리학교 선배라고 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앞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동문을 설문조사해 차례로 만나보는 칼럼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종규(불교대 불교2)

## 동국 히노 애락



▲ 동국대학교 병원+한방병원 전경.



▲ 동국대학교 병원+한방병원 개원식.

### ⑥ 동국대학교 병원+한방병원 개원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이 지난 9월 27일 정식 개원을 했다. 이날 개원식은 이사장(김현해) 큰스님, 흥기삼(국어국문학) 총장, 이석현 의무원장을 비롯 현교 총무원장 권한 대행 스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순환규 경기도지사 등 각 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거행됐다.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의 역사는 지난 94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10 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진료를 시작하고 드디어 지난 9월 27일 정식개원한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은 수많은 불교신자와 우리학교 동문들의 힘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동국대학병원+한방병원은 양·한방 함께 진료할 수 있는 전국 규모로는 최초의 대형병원이며 동서 의학 및 제 3세대 의학 표본병원으로서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건강증진센터 및 퇴행성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서 없는 병원', '완전 전산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양·한방을 한 곳에서 진료하는 전국 규모의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전혀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기록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ing)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가로열선

- CCT라고도 불린다. ○○카메라.
- 국악기 중 현악기로, 현금이라고도 불린다. 6줄로 이뤄져 슬래프로 쳐서 소리내며 소리가 깊고 장중하다.
- 우리학교 임기중(국어국문학) 명예교수는 최근 2천여편의 이 문학을 DVD로 편찬해 화제를 모았다.
- 최근 발생한 김지파동은 식품○○의 중요성을 각인시킨다.
- 어떤 형상을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
- 이번 학기부터 등록금과 학생○○납부가 분리 고지됐다.
- 들건이나 일이 매우 많음을 비유하는 말. 할 일이 ○○같다.
- 돈이나 도서를 빌려줌. 도서 ○○.
- 매년 2월과 8월이면 이것을 수여하는 행사가 열린다. 일정 수준의 학술능력이거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 붓글씨에 쓰이는 문방구. 벼루와 짝을 이루어 검은색을 만든다.

### 세로열선

- 이번 호 사람면에서 인터뷰 한 이문희씨의 직업은 토지○○○○.
- 오는 22일부터 3일간 총학생회 ○○가 실시된다.
-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 CEO.
- 소설가 최인호의 자전적 연작소설 제목. 부부를 중심으로 헬연자가 주가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
- 학생들의 대표기구.
- 조직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자질이나 능력.
- 우리학교 동아리 연합회는 현재 이 체제로 꾸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졸업말.

##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11월) 시행

- 접수 : 11. 7(월) ~ 11. 10(목) 24:00까지
- 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영어PASS제-영어패스시험 신청 - 접수증 출력 - 응시료 입금
- 시험 : 2005. 11. 19(토) 10:00 ~ 12:30 해화관 2층
- 대상 : 영어PASS제 대상자 350명  
\* 패스제 비대상자(모의토익) 신청 : 개별 방문접수(사전신분증, 응시료 지참)
- 응시료 : 5,000원
- 입금일: 2005. 11. 10(목)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 조흥 371-03-011192(Korean Program)
- 접수 주의사항(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음시 취소 가능)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학적부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 후 다음 주 중 접수완료안내메일을 보내드리므로, 학생개인정보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  
다.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본인인물, 학번 또는 학과 표기 : 예, 국문홍길동)  
라. 인원이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응시가능여부를 숙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취소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60-3471, 3590)
- 시험 주의사항 : 가. 10시00분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취업스터디그룹원 모집

동일한 업·직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그룹화하여 취업교육 및 스터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대상 : 재학생, 기졸업자 중 미취업자  
○ 그룹선택 : 5개업종 내 희망직종 선택

업종	직종	그룹분류
금융업	은행, 보험, 증권 등	신청접수 후 희망인원 또는 업·직종에 따라 세부 그룹분류
유통업	무역, 유통, 판매 등	
건설업	건축, 토목, 설계, 조경 등	
정보통신업	컴퓨터,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등	
제조업	전자, 전기, 식품, 의약, 기계, 화학 등	

○ 모집기간 : 2005. 10. 28 ~ 11. 11(오리엔테이션 : 11.16)  
○ 신청방법 : 취업지원센터 방문 및 이메일신청(job@dongguk.edu)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 1부, 이력서·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2. 운영내용  
○ 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인사서류작성 플리니, 모의면접, 시사스터디, 업종별 취업특강, 업종별 동문멘토링, 업종동향 조사활동, 자유주제스터디 등  
○ 그룹운영  
▶ 오프라인 모임  
- 정기모임(격주 1회) : 교육 및 스터디(취업지원센터 주관)  
- 부정기모임(그룹구성 후 협의) : 자유주제로 자율적인 취업스터디(학생 주관)  
▶ 온라인 활동 : 홈페이지 생성(동국 e-club), 자료 수집 및 관리  
○ 지원 : 매월 1회 활동평가 후 7개 그룹 이내 활동비 지급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문의 : 2260-3059)

## 11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관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정  
가. 제6회 독서토론  
일 시 : 11월14일(월) 오후3시-5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행 : 경영학과 이상일강사  
신청도서 : 현명한 투자자 / 벤자민 그라함 저, 국립증권연구소, 2002  
정 원 : 10명  
나. 제7회 독서토론  
일 시 : 11월30일(수) 오후4시-6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행 : 경영학과 이상일교수  
신청도서 : 블루오션전략 / 김우찬 저, 교보문고, 2004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국제교육원

가사작품 모은 DVD 펴낸 임기중 국문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지식생산의 동반자로 쓰였으면 합니다”

“단순히 가사작품을 모아 놓은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동반자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조선시대 대표적 문학 장르인 가사작품 2,000여 편을 DVD 한 장으로 집대성시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리학교 국문학과 임기중 명예교수.

이번 결과물이 단순히 작품을 검색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고려시대부터 이어지는 조상들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 생산의 창’이 되었으면 한다는 임 교수. 만나 가사 작품을 수집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가사 작품을 수집하게 된 배경은.  
= 일반적으로 가사문학이라고 하면 확장 시집에 배운 ‘관동별곡’, ‘사미인곡’, ‘삼춘곡’ 정도만을 떠올리기가

쉽다.

하지만 고려시대 말부터 시작된 가사문학은 시, 일기, 편지 등의 생활적인 글에서부터 신문 기사, 기행문, 종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었다. 학부 시절 이러한 가사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집중적으로 작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30여 년간 수집, 정리, 연구한 작품들을 지난 98년 51권의 ‘역대가사문학전집’으로 출간했다. 이러한 준비들이 지금의 결과물을 있게 한 배경이라고 생각 한다.

- 이번 결과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 실제로 여러 가사 작품들은 옛날 표기 그대로 쓰여 있어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를 졸업하고 45년간 국문학 연구에 외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가사 문학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현대 시대에 맞춰 가사 작품의 뜻을 풀이하고 독음을 붙이는 등의 작업을 했다.

이번 결과물을 통해 가사 작품 원전 독파의 장벽을 깨 곳이 없을까 하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  
= 이번 DVD의 출시로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



다. 앞으로 원본과 이본을 구별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각종 통계에 대한 분류, 장르적 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의 작업을 더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즘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과 학자들의 기행문인 ‘연행록’을 전집으로 새롭게 편찬하는 작업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구를 지속할 생각이며, 많은 후배와 제자들 역시 우리글과 문학에 대한 소중함을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정태섭 교수의 역사 속 인물이야기

정문부 장군과

북관대첩비

북관대첩은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삼대첩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관대첩은 앞의 두 대첩에 비해서 대중적인 지명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 까닭은 북관대첩의 주인공 정문부 장군 개인의 불행과 관련이 있다. 정문부 장군의 전공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 그의 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과, 훗날 그가 모함으로 옥사한 사정도 겹쳐 그의 행적을 전하는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단편적 사료가 있을 뿐인데, 정문부 장군과 휘하 의병들의 전공을 기록한 북관대첩비가 있어 겨우 북관대첩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북관대첩은 함경북도의 북단인 경성에서부터 함경도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전장을 옮겨가며 벌어진 일련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이다. 싸움의 규모나 화수, 기일, 전투결과와 영향 등에서 앞의 두 대첩을 능가할 정도였으나 북관지방에 대한 지역차별, 정문부장군의 불행한 옥사 등이 겹쳐 당시 공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주민들의 한이 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지역에 침투한 일본군 사령관인 가포오 기요마사는 승리를 확인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지배계획을 세웠다. 일본군의 우세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것이다. 함경도 땅은 여진족과 국경을 접하는 곳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에도 그 지역사람들은 관리 임용 등에서 현저한 차별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조정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한편 여진족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의 국가에 대한 귀속감이나 충성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니 정문부장군의 신망과 리더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가포오 기요마사 군은 당시 일본군의 최강부대였으며, 가포오 기요마사는 지금도 일본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문부장군의 의병부대는 의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최강 가포오 부대와 처절한 전투를 치른 끝에 패퇴시켰으니, 그 장엄함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관대첩비는 러일전쟁 당시 함경도 지방에 주둔하였던 일본군 사령관이 약탈해 갔다. 당시 대륙진출의 야욕을 품고 있던 일본에 있어서, 사상 최초로 대륙진출을 시도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최강 가포오 부대를 패퇴시켰던 기록인 북관대첩비가 러시아와 일전을 겨루는 현장에 존재함을 보고 도심을 일으켰던 것이라 본다. 이제 북관대첩비를 찾아오게 되어 정문부장군의 후손의 하나로서 남다른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가포오 기요마사가 남긴 당시의 전투기록을 찾아서 북관대첩비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면 보다 풍부한 사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겨울방학에 일본으로 사료조사를 떠날 예정이다.

인물동정

안정훈 동문 국방부 대변인에 스포츠법학 회장에 연기영 교수



우리학교 안정훈(사학 76졸) 동문이 지난 3일 국방부 대변인에 선임됐다. 지난해 30년만에 공군 정훈부와 출신으로 준장 직에 올라 화제를 모았던 안



지난 3일 우리학교 법학과 연기영 교수가 서울대에서 열린 아시아 스포츠법학회 창립대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런 선임은 연기영 동문은 국방부에 대변인 직제가 생긴 이래 비육군 현역으로서는 최초로 대변인을 맡는 것이다. 이번 선임에 대해 국방부는 3군 균형원칙과 개혁성 등을 고려해 안 동문을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수가 지난 99년 한국스포츠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아시아권으로 확대하는 등 볼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스포츠법학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된 것이다.

선배를 만나다

“노인문제 해결위한 40년, 소중하기만 해요”



이돈희(무역 69졸) 노인학회 회장 · 토지감정사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주변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부모만 잘 모시고 공경해도 노인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평생을 달려왔다는 이돈희 동문.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 역시도 모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동문은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해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여 있는 회사에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서 활동이 자유로운 감정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라며 “이러한 모든 결정은 내 인생의 최대 목표이기도한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74년 토지평가사 시험에서 최연소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20여 년간 토지공사에서 일하며 고위직까지 올라갈 정도로 토지 감정사로서의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관심은 온통 노인 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의 노력이 직접적인 결실로 나타난 것은 국가에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고,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변경, 시행한 것이다.

“노인의 날 제정을 위해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한 돈

을 모아 각종 일간지와 대학 신문 등에 글을 기고하고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하고 할 때에는 많이 서럽고 힘들기도 했어요.” 그는 대학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24살에 한국노인문제연구소와 한국노인학회를 설립해 집중적으로 노인문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20대의 젊은 청년이 노인문제에 매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언론 매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방송 출연과 일간지의 기고 기고 등이 단순히 얼굴을 알리는 것이 아닌 노인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에게 경묘호전 사상을 다시한번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됩니다. 현재의 대학생들도 몇 십년이 지나면 모두 노인이 됩니다. 우리 후배들부터라도 진정한 경묘호전 사상의 부활을 위해 노력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라고 말하는 이 동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보낸 지난 40여년의 외길 인생이 소중하기만 하다는 그의 모습을 보며 현재의 우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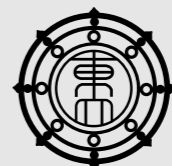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2006학년도 제1학기 교수초빙 백년 학문의 도량 - 동국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연구하는 일이 신나는 교수님을 모십니다!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영화제작(촬영/사운드디자인/편집), 게임그래픽디자인 및 게임기획, 한국윤리, 고전산문(소설), 한국현대문화연구, 영어교육(원어민 우대), 영어통번역학, 서양고중세사, 수차례해석, 물리화학(실험분야), 식물유전생리, 시스템생물학 또는 발생학, 헌법, 민법, 상법, 사회법, 북한학, 광고이론, 무역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생산/운영관리, 인사·조직, 재무회계, 세무회계, 통신통계, 동신공학, 안테나공학(초고주파공학), 교육심리·상담, 연구연출 및 연기, 영화연출/시나리오, 영화이론 《경주캠퍼스》 한국사상, 유아교육연구동향 및 부모교육(불교유아교육 강의 가능자), 여가·레크리에이션(영어로빅 및 댄스스포츠 지도가능자), 정보응용, 수학교육론(전공수학 강의 가능자), 임베디드시스템, 제어 및 신호처리, 무역실무분야, 재무관리(경영분석, 관광학일반, 관광경영, 예방의학/보건관리학 《의학계열 임상분야》 내과(혈액종양내과학), 신경과(일반신경학), 성형외과(성형외과학), 소아과(신생아학), 안과(망막), 이비인후과(이과학), 마취통증의학과(마취통증의학), 방사선종양학과(종양방사선), 산업의학과(산업 및 예방의학), 치과(전분야), 내과(심장내과학), 신경외과(신경외과학), 진단방사선과(진단방사선학), 산업의학과(산업의학), 응급의학과(응급의학) 《서울캠퍼스 강의전담 초빙교수(비전임교원)》 법학 글쓰기, 자연과학 글쓰기, 고전강독

■ 접수기간 : 2005년 11월 16일(수) ~ 11월 21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서 직접 입력함 \*세부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세계 속 우리문학의 현 주소와 발전방안

# 전문 번역 인력 양성하는 지원 필요

우리 문학의 역사성이나, 그 가치에 대해 회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스 3부악을 연상케 한 신라 향가 '찬가파랑가'는 물론, 웰리의 '아별'과 강연의 '애강남부'를 능가할 고려 속요 '가시리'의 함축과 애잔한 정조미를 국풍처럼 향유했는가 하면, 얼룩배기 황소 등에 올라앉은 목동의 피리소리에 석양 노을도 쉬어 넘던 풍류, 그 선민의 육자배기 가락마다 몇 겨운 사실이 낱설지 않은, 장히 낙천적 민족성으로 문예를 향유해 온 우리 민족이다.

코가 정한 빛나는 문화유산도 남 못지 않게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문학의 세계화, 그 현주소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은 몇 사람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냈는가. 혹은 몇 개 국어로 번역되어 지구촌 독자들의 수용미학에 충족하고 있는가. 등으로 결정되어지는 셈이다.

### 우리문학 경쟁력어

우리 문학의 세계화가 늦는 이유, 곧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야 분분할 뿐 명쾌한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우문 답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문학의 수준이 노벨문학상 수상작에 비해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을 때 '무엇이 세계화나'를 정의해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 했다.

그렇다. '가장 전통적이고 주체적 인 것', 그것의 세계화야말로 가장 빛

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도덕성과 국제적 신임도를 수반한 국력이 따라야 한다.

### 작품 담론 다양화돼야

우리는 노벨문학상에 연연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고유의 전통을 이해하고 지키며, 주체성을 지녔는가, 그리고 세계인들을 인식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또 국가의 도덕성과 신임도는 어떠한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제도가 그렇듯 노벨문학상도 제도의 틀 속에서 심사하는 선정의 기준이 있다면 범박한 논리지만, 그 제도의 틀 속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작품의 담론도 인류가 공유할 화소의 창출, 예컨대 이데올로기의 허위와 위선의 벽을 허물 탈이데적, 혹은 인류 공동의 행복추구를 위한 친환경적 소재, 또는 종교본성에 따른 반테러리즘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통

해 범인류적 담론에 대한 동양적 인본주의 사상 고취도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는 한 방편일 수 있으리라.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 대안은 화자의 정확한 메시지 전달, 곧 우리 문학의 정조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의 문제라 할 것이다. 언어 예술인 문학에서의 언어가 갖는 다양한 뉘앙스, 특히 음성언어이되 우리말 화한 그 많은 표의문자의 심상 전달은 지난한 과제다. 더욱 유난히 발달한 우리말의 부사와 다양한 수식어 번역은 전문 번역 인력 양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은 응서할 수 있지만, 세계문학상을 생각해낸 건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꾸짖었던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와 같은 냉소가 아닌 진정한 수혜국이 되기 위해서라면 작가들의 의지에 못지 아니한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 과제임을 재언해 두고자 한다.

김갑기  
국어국문학과 교수

## 메아리

### 오락가락

▲“위안 맡기입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환자는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 날 이후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는 그와 가족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재검사해 본 결과 단순 종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제거하러 오십시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김치 파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식약청이 중국산 김치의 납 성분 검출 발표에 연이어 기생충 알 검출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더욱 갑 잡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건당국과 식약청의 ‘오락가락’ 하는 태도에 있다. 납이 검출됐다고 발표된 지 10여일이 지난 이후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해 한숨 돌리게 하더니, 불과 며칠 만에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수그러들었던 김치 파동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연어는 중국산 김치의 문제제기는 김치에 대한 불안, 배추 값의 급등 현상을 넘어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왔다.

중국은 맞불작전이라도 하듯 우리 제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급기야 중국에 수출된 국산 김치, 고추장 등의 식품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번 파동으로 미국,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치 역시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식약청은 “국산과 중국산 김치에서 발견된 기생충 모두 미성숙란이어서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며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은 듯하다. 설부터 발표와 미숙한 대처가 이미 소비자와 수많은 김치 업체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낸 환자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김지는 기자  
bob83@dongguk.edu

### ① 한국화 그리는 이희은 양

## “우연이 빛은 자연스러움과 먹의 향기가 좋아요”



옛 선조들이 '먹'으로 그린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화려한 색채는 없지만 은은한 먹의 농담 속에서 묻어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수채물감과 아크릴 물감에 길들여진 요즘 젊은이들에게 '먹'은 다소 낯선 채색도구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속에는 우리 문화만의 향기가 듬뿍 담겨있다.

우리 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는 이희은(한국화4) 양은 이러한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고 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당찬 젊은이다. 이에 그를 만나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화의 매력과 진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한국화를 시작한 계기는.  
=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양으로 처음 배웠는데, 그 순간 '내 길은 바로 이 것'이라는 느낌이 왔다. 원래 서양화를 했고 그 전공을 살려 예고에 진학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화로 진로를 바꿨다. '먹'이 갖

### 연재기획 - 우리 문화를 찾는 젊은이들

우리 전통문화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본다

편집자

는 고유한 향기, 그 중후한 맛이 좋았다.

- 서양화와 차별된 한국화만의 특징과 매력을 꼽는다면.  
= 한국화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한번 종이에 먹을 찍으면 작품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연의 효과'가 한국화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양화는 정해진 기법에 많이 구애받는 반면, 한국화는 인위적이지 않고 형식이 자유롭다.

특히 실기작업을 할 때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어 좋다. 성격이 산만한 편인데 작업할 때에는 차분해져 마치 또 다른 나를 찾은 것 같다.

-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어떠한가.  
= 학부과정에 이어 계속 한국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과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에는 대학에서 나와 같은 길을 걸으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 한국화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서양화 위주로 교육시켜 그것이 대세인 듯 해보이지만, 사실 미술계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한국화를 잘 모른다면 한 번 접해보기 바란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든 한국화의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현〉  
niitake@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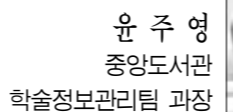
### 내가 좋아하는

## 문화예술인

### 삶의 고뇌를 가벼운 필치에 녹인 만년 청년



소설가 최인호



윤주영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과장

올 여름부터 조용히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설이 있다. 최인호의 '유립'.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 최인호란 작가의 소설을 처음 접했다. 처음 대중소설을 읽어본 것이 '우리들의 시대'였는데, 고등학생들의 우정과 사

랑, 당시 최고의 관심사였던 대학진학 문제들이 유머러스하고 진솔하게 그려져 있어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난다.

최인호는 다양한 기록의 보유자로 유명하다. 18세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벽구멍으로'로 당선작 없는 가작입선을 했을 때, 수상식장에 나타난 교복 차림의 최인호를 보고서야 그가 고등학생임을 안 신문사 측은 그의 이름만 내고 작품은 게재하지 않았는데 한국일보 화재 때 작품이 소실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연소 신문연재 작가, 가장 많은 작품이 영화화 된 작가, 하다 못해 책표지에 작가의 얼굴이 실린 최초의 작가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였다.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그 소설의 영향으로 당시 술집아가씨들의 이름 중 가장 흔한 이름이 소설의 여주인공 '경아'였으며, 그 시대 남성들의 여인상이었다고 한다.

당시 젊은이의 감수성과 고뇌를 경쾌한 필치로 그려내 열광을 한 몸이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 통속작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내가 그의 소설을 읽으며 받는 이미지는 전편에 흐르는 따뜻함과 또 그에 대비되는 우울함이다. 이 두 상반된 느낌의 조화가 구어체로 가벼운 대화 속에서 묘한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그의 주인공들은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그 본질의 맑음이 혼탁

해지지 않는다. 또한 행복에 잠겨있을 때도 그늘이 걸리지 않는다.

영원한 젊은이, 만년 청년이라던 그가 어느덧 회갑의 나이가 되었다니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된다. 격세지감. 지금시점에서 그의 소설들을 읽는다면 오히려 고리타분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지금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이다. 규제와 단속으로 점철된 시대, 물질적인 모든 것이 지금보다 부족하고 모자랐던 시대.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청춘의 꿈은 오히려 더 빛났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의 글을 읽으며 느껴지는 따뜻함을 좋아한다. 특히 자전적 연작소설 '가족'을 읽어보면 스케치처럼 가벼운 터치로 묘사한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 질로 웃을 짓는다. 부인은 '별들의 고향'의 경아의 모델이었고, '겨울 나그네'의 여주인공은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또 아들 도단을 주인공으로 하여 '도단의 모험'이라는 철학동화를 쓰기도 했다.

자신의 가족을 모델로 작품을 쓰지 않고 해서 그 작가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도 재능의 하나라고 본다. 조급은 부림다는 생각도 들면서, 하지만 그의 소설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 재미있으니까!

### 동연제 평가

## 함께 만드는 동연제 돼야

2005 동연제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축제는 예년에 비해 참가자가 적어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 아쉬웠다는 평가다. 그러나 올해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부재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비상대책위원회(회장=권은영·영문4, 이하 비대위)가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년의 규모를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번 동연제는 앞으로 결정되는 동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3천 동아리인의 발구름판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발구름'을 모토로 개최됐다. 행사는 △27일=아름다운 가게, 자연과학동아리의 천체망원경과 관측사진 전시 △28일=영화제, 개인·단체 립보대회와 단체졸업기 등 체육대회, 폐막회 △27, 28일=기우회의 바둑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동연제는 일반학생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28일 팔정도의 개인 립보전에는 예년과 달리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었다. 또한 폐막제

공연을 보러 온 모든 학생들에게 맥주와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여전히 부진했던 점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개인 립보전 참가자는 그 자리에 있던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같은 날 폐막 때에는 200여명의 좌석이 반도 차지 않아 폐막제 참가 공연동아리들만의 가족잔치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 동연제를 관람한 김남호(수학4) 군은 "지난 해에 비해 동연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나 대자보를 보기 힘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대다수 동아리들의 참여 부족은 큰 문

제점이다. 문계구름 등 6개 동아리의 폐막제공연과 학술 1분과의 주점을 제외하면 타 동아리들의 참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또한 각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활동사진 전시가 소규모로 단시간 진행될 것도 아쉬운 점이다.

이와 관련해 권은영 비대위원장은 "예정과 다른 시험일정과 각 동아리들의 정기행사 및 대외활동 일정이 동연제와 겹쳐 참여가 부진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에는 일정 기획에 일정을 9월 말 정도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연제는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획·개최하는 의미 있는 문화행사이다. 때문에 학내 주요 행사 중의 하나인 동연제가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동아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niitake@dongguk.edu



## 문화단신

### 문화다양성협약 체결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지난 달 20일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154개 회원국 중 148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공식 채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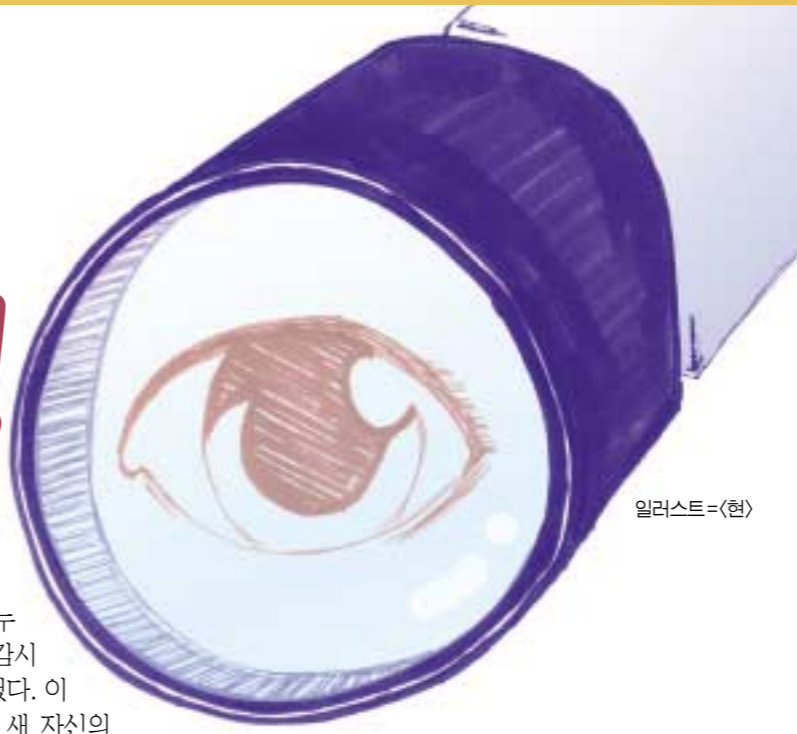
이번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소수자의 문화 표현의 권리 △언어를 비롯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문화 다양성의 보장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특히 '문화다양성협약'은 △각국의 문화 정책 수립 권리를 국제법으로 보장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를 명시해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문화계는 스크린쿼터제가 국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강대국에 종속돼 빛을 보지 못한 약소국의 문화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이번 협약은 앞으로 세계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누군가 당신을 보고있다!



일러스트=〈현〉

최근 국내 모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의 몰래카메라'가 14년 만에 부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 연예인을 난감한 상황에 빠뜨린 뒤 그에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주인공 몰래 카메라로 훑어보는 이 프로그램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많은 인기를 누린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은 욕구를 잠재하고 있다. 지난달 K 대학에서 발생한 한 남학생의 여자화장실 몰래 카메라 촬영사건,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도청 사건 등은 그 목적이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매우 사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는 기존의 훑쳐보기 식의 음란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넘어, 정보사회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보다 편익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감시카메라, 전화통화 내용을 엿들 수 있는 도청장치, 그리고 대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개인 복지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을 토대로 많은 범죄가 해결되고 있으며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며,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감시카메라를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도청해 협박하는 등의 또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용 휴대폰에 카메라, 녹음 장치 기능이 첨부되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감시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 이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의 말이 녹음되거나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맥락과 같다.

문제는 이러한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단지 사용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에만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최근 정보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보다 강력

한 법 제정은 현대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시 시스템 판매와 설치, 사용자 등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감시가 사회의 '필요악'이라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법질서의 확립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매체비평

### 방송편

#### 이주노동자방송 MWTV

사회를 향한 소외된 자의 외침  
매체 환경 한계 극복해야

지난 7월 인터넷매체 이주노동자방송국(www.migrantsin-korea.net)의 박경주 대표와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박 대표도 그랬지만, 이주노동자 문제를 두고 운동 전선에 나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존 언론에 비춰진 이주노동자의 모습에 대해 모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미디어 속에서 그들은 단지 동정의 대상, 전쟁만 났다면 터번 쓴 사람들은 모두 테러리스트였으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레 R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방송이 한국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들 문제에 대해 의제화 시키지 못한 언론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 근처는 한국에 일하러 들어왔다가 목숨을 잃은 96명의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식으로 향내음이 가득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 아닌 정착을 해온 것도 벌써 20여 년. 이 땅에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만 하더라도 약 40만 명에 이른다. 사회 내부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용인하면서도 그들의 '소외'로 인한 '외침'에 대해서는 동정의 눈으로, 또 혀를 차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기획, 촬영, 리포트 하는 RTV 시민방송의 '이주노동자방송'은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이사회에 대한 일침이다.

물론 위성방송이라는 한계점과 맞물려 '회귀성' 정도로 그치고 만다는 불멘소리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방편 면에서 위성방송이 지닌 포지셔닝 탓에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꼽힌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자막이 충실하게 제작되지 못한다는 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취재 지원에 나서서 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덧붙여 그들의 목소리로 비판만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매체가 전파를 타던 인터넷이든, 또 전달하는 이가 이주노동자든 한국 사람이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제작자의 길로 나섰다면 한국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방송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사명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결코 혼자 아니라는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단지 이주노동자가 화면에 나온다고 해서 노동뉴스가 되고 인권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그들을 무조건 동정적 시각에서 볼 수도 없고, 또 다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현재로서는(전달 도구의 구분 보다) 사회 내에서 '합의점'과 '여론'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순수한 의미로 현재 이주노동자 방송은 진보하기 위해 큰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중이다.

박상희  
민중의소리 국제부·미디어 담당 기자

## 캠퍼스 감시시스템 일일 체험기

# 캠퍼스, 무한정보노출지대?!

11월 2일 문화관 1층 경비실 앞. "어머, 저기 애들 보이네." 이철희(사과대1) 양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니터에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자 놀란 모양이다. 화면은 문화관과 동국관이 이어진 계단을 비추고 있다. "이따가 친구들 만나면 어디 가는 길이었나 물어봐야겠어요"라며 웃는 그는, 친구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재미있는 듯 하다.

이처럼 우리학교 곳곳에는 도난 사고 방지 목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대부분 각 건물 경비실 화면에 나타난다. 평소 한 번쯤 경비실에서 이 같은 모니터를 보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지만, 사실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정보를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않은 일이다.

### e-class, 개인정보 노출 쉬워

동국관 M동 2층에 새로 생긴 능금회관 컴퓨터실에서 e-class를 이용하는 설희 양. e-class에 접속해 다음 시간에 필요한 인쇄물을 내려받기 한 후 '수강생정보'란을 클릭한다.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궁금하다며 찬찬히 살

펴보더니, 이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친구들 사진을 보고 재미있어 한다. 그러나 잠시 후 "그런데 누군가도 내 사진을 보고 여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불쾌하네요"라며 씩씩해한다.

e-class의 '수강생정보'란에서는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의 이름·학과·학년·학년·사진까지 조회할 수 있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마련된 e-class이지만, 이 같은 체계는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정보가 새나갈 수 있기 십상이다.

"발표 수업이 있어 중도에서 책을 대출해야 해요." 중앙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학생증을 찍고 출입구를 통과한다. 발표에 필요한 도서를 찾아 무인대출기에 학생증을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대출을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증을 통해 대출자의 정보가 노출된다. 이번엔 멀티미디어실의 자리를 예약하려고 하자, 역시나 학생증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다.

### '편리함'에 감춰진 이면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은 그에 걸맞게 감시카메라가 수도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도서관 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

고 있는지 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 설희 양은 문득 "영화 '트루먼쇼'가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라며 웃을 짓는다.

중도를 나와 만해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설희 양을 따라간다.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첨단 시설로 꾸민 만해관. 더욱이 만해관 열람실 좌석시스템은 학생증으로 개인확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학생증을 인식기에 갖다 대자 조그만 창에 간단한 신상정보가 빠르게 찍히더니 자리가 예약된다.

"편리한 하지만 한편으로 뭔가 찝찝한 느낌이예요." 설희 양은 씩씩한 미소를 띠며 말한다.

해가 저물자 집에 간다는 그를 따라 동대입구역으로 갔다. 하루 동안 캠퍼스 내에서 개인 정보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체험 한 이철희 양은 개찰구를 빠져나가며 "평소 학교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루를 지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 내가 노출되고 있어 놀랐다"고 말한다. 뒤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지하철 감시카메라가 비추고 있다.

〈이〉  
lee123@dongguk.edu

